

불균형에서 오는
퍼텐셜 에너지

The Cacophony
of Unbal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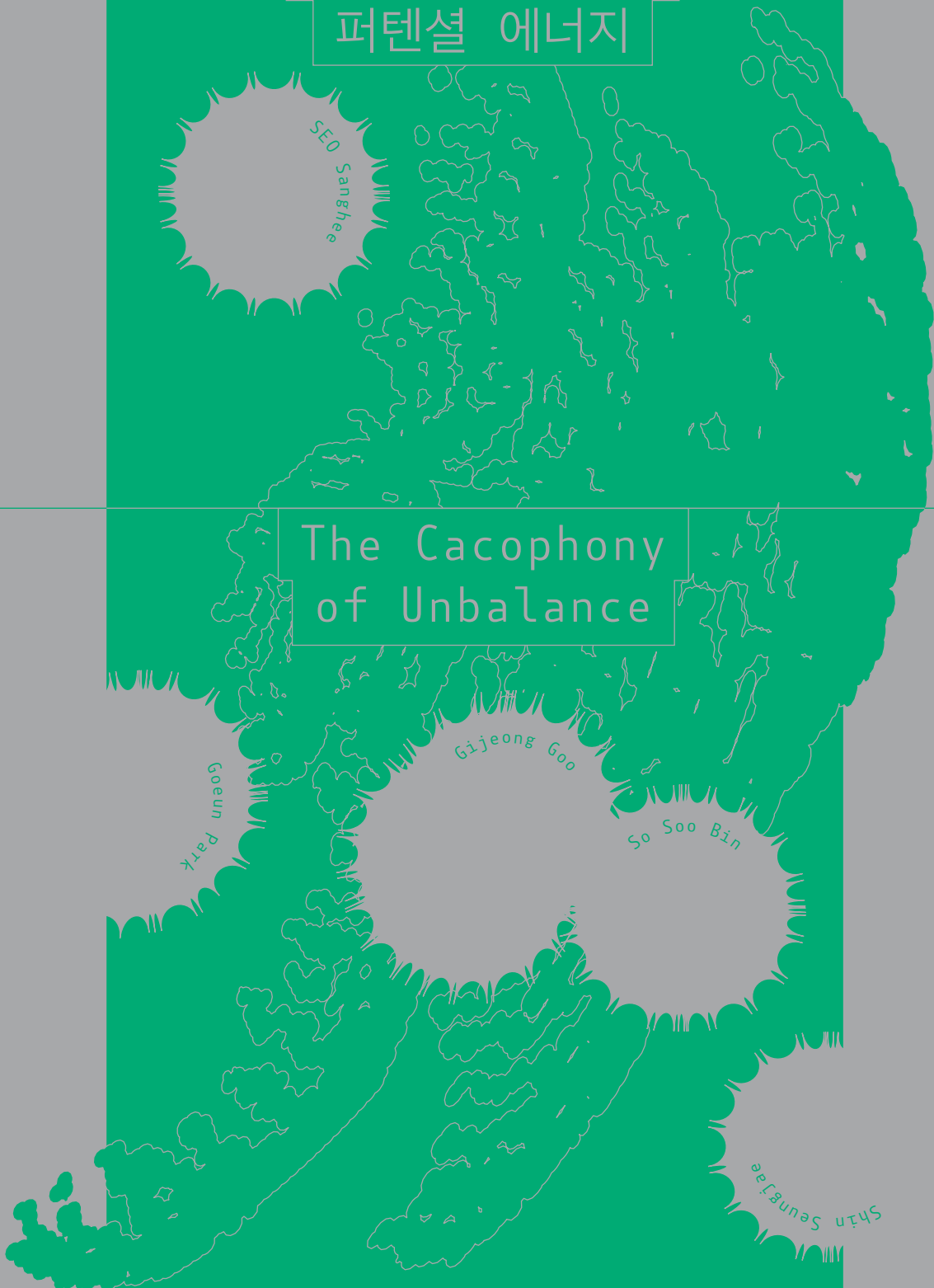
SEO Sangh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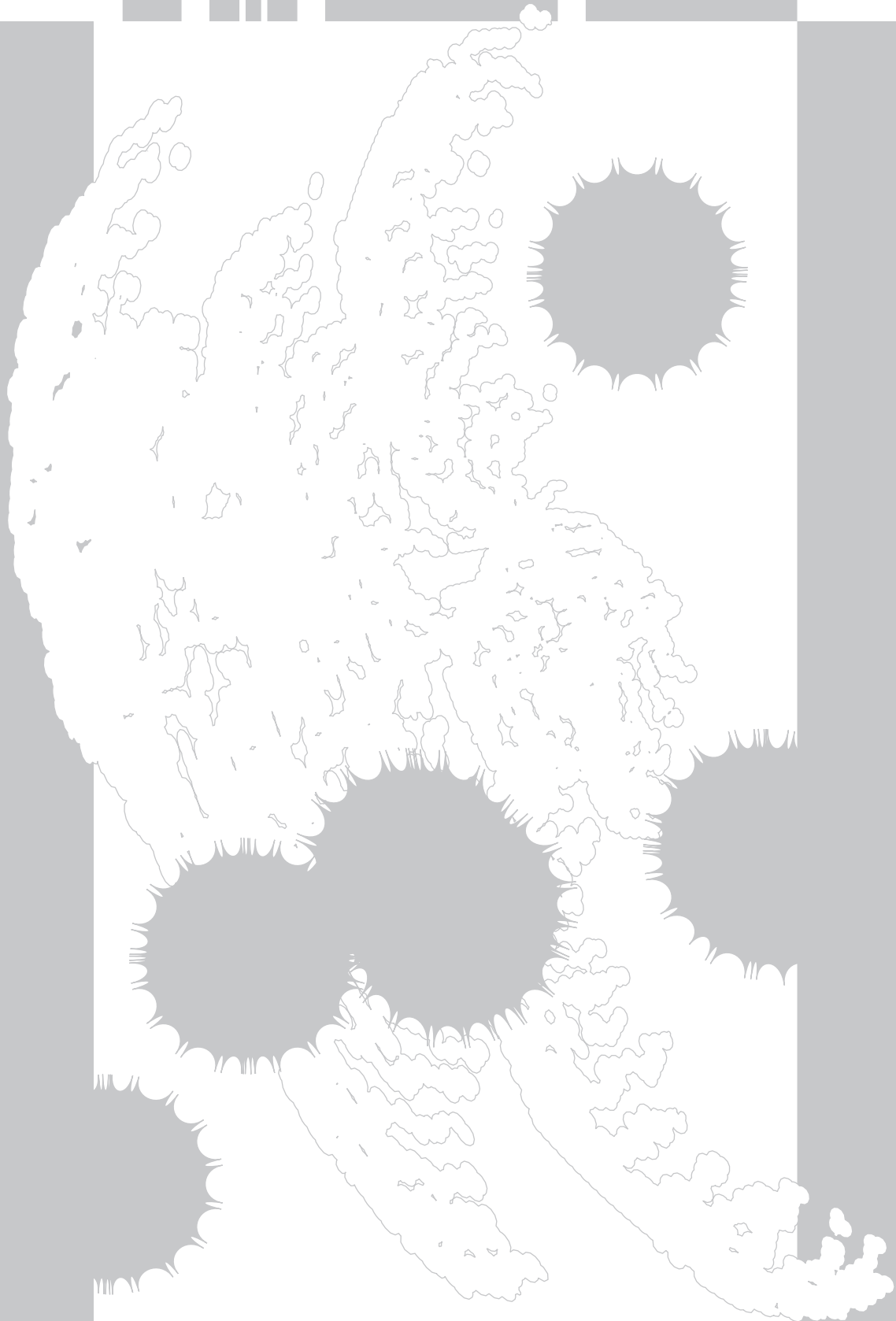
Go Eun Park

Gijeong Goo

So Soo Bin

Shin Seungj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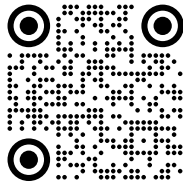




불균형에서 오는 퍼텐셜 에너지

The Cacophony of Unbalance

the-cacophony-of-unbalance.com



불균형에서 오는 퍼텐셜 에너지 하수경 The Cacophony of Unbalance Sukyung HA	4
잡초로 공명(共鳴)하기 홍라담 Resonance with weeds Radam Hong	12
작품 소개 Artworks	22
구기정 Gijeong Goo	24
박고은 Goeun Park	34
서상희 SEO Sanghee	44
소수빈 So Soo Bin	54
신승재 Shin Seungjae	64
전시전경 Installation View	74
약력 Biography of Artists	86
크레딧 Credits	96

불균형에서 오는 퍼텐셜 에너지

하수경

불균형에서 오는 퍼텐셜 에너지

The Cacophony of Unbalance

Sukyung HA

The Cacophony Of Unbalance

《불균형에서 오는 퍼텐셜 에너지》는 이질적인 요소들 사이에서 새로운 형태가 창조되는 양상을 바라보며 기술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소통 가능성과 관계 맺음을 모색한다. 예술은 어김없이 기술의 시대에 잔물지어 시대를 읽어내는 대상과 인식의 문제를 동시대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질주하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출현한 낯선 실재들에 적합한 새로운 사유의 언어가 필요한 현시점이다. 기술이 '독'이면서 '약'으로 가능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기술과 상호 공존하는 인간의 삶을 향하여 새로운 방식의 소통과 정서적 공명의 관계는 어떻게 동행이 되어야 할 것인가. 전시는 근대적 예술 개념과 관습적 장르 구분에서 벗어나 동시대 예술의 다원성을 대변하는 다섯 점의 융합예술작품을 소개한다. 작품은 작가의 상상력에 각각 다른 '자연'과 '기술'의 요소가 혼종, 변형의 방식으로 가미되어 전시 안에서 하나의 독특한 존재로 자리한다. 전시 안에서 작품은 다른 작품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의 긴장된 앙상블을 형성하고 작품에 내재하는 잠재성은 새로운 방식으로 실현한다. 이질적인 작품들이 하나의 앙상블로 변조되어 가는 관계 맺음이 유의미한 기술미학적인 가치가 될지, 무의미한 소음이 될지는 작품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의 앙상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전시 안에서 서로

The Cacophony of Unbalance explores new communication potential and relationship forming in tandem with the technology era, observing how new things are created in the midst of disparate elements. Unquestionably evolving with the technology era, art has been contemporarily modernizing the subject reading the era and the matter of awareness. The current moment cries out for a new language of thought to describe strange existence emerged with ever-developing technology. In the current era where technology works both as 'poison' and 'medicine', we should look into how new way of communication and sentimental resonance go together towards human life coexisting with technology. Transcending the boundaries of the modern art concept and conventional genre, the exhibition showcases five groundbreaking works of convergence art embodying the spirit of contemporary art's pluralism. Each piece stands as a unique entity, a vibrant manifestation of the artist's imagination interlaced with factors of 'nature' and 'technology' in heterogeneous and transforming way. These artworks form a tense ensemble, unlocking their potential in unforeseen ways. Whether this confluence translates into a technologically aesthetic value or a meaningless noise hinges on the organic interplay between pieces.

다른 것들이 모였을 때 불시에 솟아나는 퍼텐셜을 상상해 보며,
작품 속에서 기술성이 내포하는 양식에 대해 재고하고자 한다.

물리학 이론에서 일컫는 '준안정상태'는 안정된 상태도 불안정한 상태도 아닌 그 어느 경계의 상태이다. 언제 다른 상태로 전환될지 모르는 이 긴장된 상태에서 어느 순간 불균형이 생기면 잠재되어 있던 에너지가 생긴다. 안정되거나 평형된 상태가 아니기에 변형될 잠재성이 기저에 깔려있고, 내부에서 비대칭적인 두 극단 사이에서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불균형에서 오는 퍼텐셜 에너지》는 일종의 준안정상태이다. 전시 안에서 작품은 기술과 자연, 인간과 기술, 그리고 자연과 인간과 같은 이분법적 개념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관계성과 혼종적 주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경계를 함축한다. 이에 따라 전시는 서로 다른 작품 간의 긴장 관계 속에서 환원할 수 없는 새로운 상관성 구조를 창발한다. 전시는 변화와 생성의 잠재적 역량에 해당하는 퍼텐셜 에너지로 가득 찬 상태로 긴장의 상관관계 속에서 불연속적인 도약과 연속적인 자기 보존의 준안정성을 유지한다.

Imagining the potential that unexpectedly bursts among heterogeneous elements in the arena, the exhibition invites you to contemplate mode of the technical properties in the works.

Physics describes a 'metastable state' as a precarious balance between stability and instability. In this state, even a minor irregularity can trigger a transition in either direction, creating potential energy. The transitional potential underlies as it is neither fully stable nor perfectly balanced and energy exchange arises between two asymmetric extremes. *The Cacophony of Unbalance* embodies a similar kind of metastability. Transcending dichotomous concepts such as technology and nature, humans and technology, and nature and humans, the artwork implies various relationships in our society, heterogeneous individual, and boundaries generated from them. Therefore, the exhibition creates the irreversible new correlation structure within the tense relation between different works. The exhibition makes discontinuous take off and maintain continuous self-preserving metastability in the tense correlation with full of potential energy for change and generation.

《불균형에서 오는 퍼텐셜 에너지》는 서로 다른 작품들 사이에서 새로운 관계를 발견하며, 관계의 연결망을 확장하는 사유를 고찰한다. 전시에서 소개하는 총 다섯 점의 작품은 자신의 개별적인 구조와 방식으로 자연과 기술 그리고 인간 사이에서 솟아나는 생성과 변화의 이야기를 전한다. 구기정은 실재하는 자연 풍경을 3D 렌더링 기반의 디지털 이미지로 재현하여 기존의 인식에 혼란을 줌으로써 이질성을 인식할 수 있는 잠재적 균열의 순간들을 창출한다. 박고은은 나무의 미세한 움직임 데이터를 그래픽으로 재구조화하여 실제 보이지 않는 저 너머의 물질적인 층위를 은유한다. 서상희는 실제 식물과 가상 식물 간의 경계가 만들어내는 공간, 이때 발생하는 틈 사이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미적 경험을 모색한다. 소수빈은 실제 식물과 인공식물을 자유자재로 이동시키는 감각적 체험 안에서 식물은 실제적으로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자연과 기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불안정적으로 변형되는 존재임을 시사한다. 신승재는 식물과 사람이 서로 맞닿았을 때 식물 세포가 감지하는 미세전류 데이터를 작곡의 구성요소로 활용하며, 입체음향 시스템에서 새롭게 변주된 선율을 '씨앗'이라는 매체로 표방한다. 전시 안에서 한 지점에서 솟아난 생성은

The Cacophony of Unbalance discovers a new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 artworks and explores expansion of relationship's network. The five works, showcased in the exhibition, deliver the stories of generation and change created from nature, technology, and humans in their individual structure and method. Gijeong Goo translates the real landscapes into 3D-rendered digital images to disturb the existing awareness, creating potential fragile moments where the audience become aware of heterogeneity. Goeun Park restructures tree's micro movement data into graphics as a metaphor for the invisible material level of a higher realm. SEO Sanghee explores a new aesthetic experience from the boundary between real and virtual plants and its space. So Soo Bin highlights that plants are not physically fixed, but metastably changeable within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nature, technology, and humanity in the sensory experience where the audience move the real plants and artificial plants at will. Shin Seungjae delves into the audience's sensory expansion by representing stereophonic sound as a new medium, 'seed' as the sound is created physical contact between the plants and the audience. Generation occurred from one point in the exhibition gradually and discontinuously impacts other points

다른 지점으로 그리고 모든 방향으로 점진적이고 불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작품은 전시 안에서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준안정적으로 변형가능한 존재로서 서로 다른 작품들과 하나의 앙상블로 변조되어 간다. 이때 앙상블은 작품 안에 내재하는 퍼텐셜을 일깨워 다른 차원의 관계 방식으로 나아간다. 작품은 각자의 고유한 생성과 특수한 연대기를 가지고 있기에 일관하지 않고 그 자체가 변화의 원동력을 지닌다. 그렇기에 작품이 모인 장은 안정적 평형상태가 아닌 변화의 가능성에 열려있는 상태이다. 변화의 잠재력을 소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다른 작품들이 이루는 무도는 가히 불균형적이다. 불균형적인 에너지의 율동 속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순간적인 정동은 교차하고 머물고 응고되며 새로운 차이와 변화를 창출한다. 전시 안에서 작품 간의 내적 공명은 마치 불협화음을 상기한다. 불협에서 오는 간극과 틈은 새로운 잠재성을 발현하고 관계의 감각을 깨운다. 이 앙상은 마치 다중적이고 변이적인 사회의 모습을 투영한다. 예측할 수 없는 다양성을 품으며 서로 간의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사회는 서로 근본적으로 분리된 독립된 실체들의 우주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매번 새롭게

in all direction. As a metastably changeable being within the relationship instead of static, the artwork is transformed into one ensemble with other works. This ensemble taps into the inherent potential of the work, pushing boundaries of relationship to the higher level. As the works have their own formation and unique history, they resist stagnation, becoming a catalyst for ongoing change. Therefore, the arena is open to potential change instead of stable balance. The dance between different works reaches a precarious unbalance when their potential for change remains untapped. The momentary affect from dance of the unbalanced energy crosses, stays, and coagulates, creating new difference and change. Internal resonance between the works reminds us of cacophony which creates the gap and space, realizing new potential and awakening sense of the relationship. The whole process becomes a potent reflection of the multilayered and variable society, reminding us of how humans live in complex relationships with unexpected diversity. Society is a place where everything is newly formed every time in reciprocal relationship, unlike a collection of isolated individuals. Everything starts from difference and ends at difference, and all similarity and coidentity is

생성되는 공간이다. 결국 모든 것은 차이에서 시작하고 차이에서 끝나며, 모든 유사성과 동일성은 그 과정의 중간 단계일 뿐이다.

기술은 기술적 본질의 고유한 원리에 따라 발생하고 진화해 나가며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조절하는 매체로 작동한다. 기술의 진보는 자연에서 얻은 물질의 형태 변환을 동반해왔다. 이 과정에서 열에너지를 발생시키며

- 1 열역학 제2법칙에 따르면, 에너지는 사용될 때마다 열로 변환되어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열에너지가 증가하는 만큼 엔트로피는 증가하고 자유에너지의 준위 역시 높은 상태의 평형점으로 치솟게 된다. 열역학 제2법칙은 자연적인 에너지 흐름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것인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 '무질서도'로 대변되는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자유에너지의 변화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에너지의 흐름은 움직이게 된다. 열역학이란 에너지, 열, 일, 엔트로피와 과정의 자발성을 다루는 물리학의 분야이다.

temporary byproducts along this ever-shifting journey.

Technology occurs and evolves according to the unique principle of technological nature and works as a medium to arrang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nature. Technological advancements have gone hand-in-hand with a continual shift in the materials we harvest from nature. This process generated thermal energy¹, and its speed has gradually accelerated. As the total energy in

- 1 According to the Second Law of Thermodynamics, usable energy degrades into heat whenever it's employed to do work and increase a system's entropy. This means that as heat energy rises, so too does entropy, leading free energy level to reach equilibrium point. The Second Law of Thermodynamics governs the direction of natural energy flow. It introduces the concept of entropy, a representative of 'disorderliness' to explain this flow. The Second Law states that free energy tends to decrease over time. Thermodynamics is a sector of physics defining energy, heat, work, entropy and the spontaneity of processes.

그 속도는 점점 가속되어 왔다. 에너지 보존법칙에 따르면 우주의 총 에너지는 변할 수 없기에, 기술의 발전이 일으키는 속도에 맞춰 자연은 변화를 일으켜왔지만 기술 진보의 가속도에 따라가지 못하여 최근 극심한 불안정성을 인간에게 되돌려주고 있다. 인간은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는 등 기술 발전과 자연 변화의 속도 차이를 메우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그러나 오늘날 자연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로 인하여 또 다른 환경문제가 생겨나면서 이전 시대에 없던 환경까지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시대에 따라 기술적 대상과 인간, 자연 사이의 관계가 갖는 의미는 확장되어 옮겨간다. 서로 다른 리듬과 속도로 생성하고 진화하는 기술과 자연의 상호작용은 인간과 세계 사이에 새로운 관계 양식을 창발하고, 잠재하던 가능성을 일깨워 다른 차원의 관계 방식으로 연결하여 새로운 방식의 소통과 정서적 공명을 이끈다. 전시는 기술과 자연의 요소가 가미되어 기술적이면서 자연적인 자기 고유의 개체성과 단일성을 지닌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작품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기술과 자연이라는 이질적인 두 요소 사이에서 발생하는 간극의 영역으로서의 경계에 주목한다. 경계는 여기와 저기를 나누는 선이자 동시에 접하고

the universe remains constant according to the energy conservation law, nature has transformed itself in line with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speed. However, its inability to catch up with the acceleration of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causes extreme uncertainty which damages people recently. Humans seek to bridge the gap between technological progress and the pace of natural change by developing environmentally friendly technologies. However, today,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to solve natural environmental problems has created other environmental problems and conflicts of environmental values that has never existed in previous eras. The mean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ical object, humans, and nature continuously expands and progresses with each era. Interaction between technology and nature, created and evolving in distinct rhythm and speed, fosters new mode for human connection with the world, and unlocks the potential possibility to connect them in a way of different level, leading to the way of communication and sentimental resonance. The exhibition is composed of artworks that have their own individuality and unity with both technology and nature elements. Each piece highlights the boundary of gap between two different elements,

있는 면으로 그리고 간극과 틈에 의한 어떤 공간으로 상상해 볼 수 있다. 작품은 혼종적인 구조를 띠는 사회문화적 구조 속에서 생겨나는 차이들이 존재하는 공간으로서 틈이자 간극으로 경계를 바라보며 여러 관계 사이에 위치하는 영역에 대한 사유를 표현한다.

자기 한계를 두지 않는 기술의 발전이 구축한 새로운 삶의 형식 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technology and nature in its own unique way. A boundary is a dividing line, a surface of encounter, even a space of gap or crack. In a society shaped by hybridity and diverse sociocultural structures, the artworks prompt us to explore the space that exists between different relationships treating the boundary as gap and crack.

How can we perceive the current era within a newly established form of life in the event of achieving limitless technological advancement?

잡초로 공명 (共鳴) 하기

홍라담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Resonance with weeds

Radam Hong
(Curator, Daejeon Museum of Art)

《불균형에서 오는 퍼텐셜 에너지(The Cacophony of Unbalance)》¹를 처음 마주했을 때, 언뜻 조화로워 보였지만 이내 넘실대는 에너지의 파동을 느낄 수 있었다. 전시는 인간-기술-환경의 관계에 대해 다면적인 층위로 발화한다. 참여 작가 구기정, 박고은, 서상희, 소수빈, 신승재의 작품이 서로 충돌하며 생성되는 에너지를 그대로 분출하고 있는 전시는 예술과 기술의 융합이라는 결괏값을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결괏값을 도출시킨 과정 그 자체를 퍼텐셜 에너지로 추적하고 이를 전시라는 형태로 선보이고 있다. 동시에 서로 다른 주체인 인간-기술-환경 사이를 교량하며 이들이 공존케 하는 관계성에 주목한다. 기획자는 인간과 기술적 대상의 관계 맺음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왔다. 지난 기획 전시인 《지나친 몸짓들: 메아리를 깨워 울려 퍼지게 하느냐(Boundless Gesture: Resonate

- 1 하수경이 기획하고 구기정, 박고은, 서상희, 소수빈, 신승재가 작가로 참여한 이 전시는 대구예술발전소 3층 미디어 팩토리와 미디어 월에서 2024년 4월 23일부터 7월 7일까지 개최되었다.

The moment I faced *The Cacophony of Unbalance*¹ for the first time, somehow it seemed harmonious, but soon enough I felt a wave of boundless energy. The exhibition manifests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technology, and the environment on multiple levels. Bursting energy generated from collision among works created by Gijeong Goo, Goeun Park, SEO Sanghee, So Soo Bin, Shin Seungjae, the exhibition transcends mere enumeration of the outcome of convergence of art and technology. It traces the generative process itself with the potential energy, manifesting it as a vibrant exploration. Simultaneously, it delves into the intricat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technology, and the environment. The curator has continued to study the relationship building between humans and technological subjects. Her previous project,

- 1 Curated by Sukyung HA and showcasing artists Gijeong Goo, Goeun Park, SEO Sanghee, So Soo Bin, Shin Seungjae, the exhibition was held at the Media Factory and Media Wall at the Daegu Art Factory 3rd floor from May 23 to July 7, 2024.

With You》²에서는 '몸짓'의 수행자로서 인간과 기술적 대상인 인공지능의 '창의적인 번역'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불균형에서 오는 퍼텐셜 에너지(The Cacophony of Unbalance)》에서는 잠재하는 물리적인 에너지인 퍼텐셜 에너지를 다섯 점의 작업을 통해 시각화한다. 동시에 출품작 안과 밖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과포화된 긴장 상태를 전면에 드러내고 있다. 질베르 시몽돈(Gilbert Simondon, 1924-1989)은 그의 '개체화(individuation)' 이론에서 존재에 대해 완전하거나 안정적이지 않고, 단일한 것도 동일한 것도 아닌 그 이상의 준 안정적인 시스템인

- 2 하수경이 기획하고 신이피, 전보경, TEAM AI-G0가 참여한 전시로 2022년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Hall1에서 개최되었다.

*Boundless Gesture: Resonate With You*², explored the possibility and limitation of 'creative translation' by artificial intelligence, the technological subject, and human as a creator of 'gesture'. She now delves deeper in this exhibition, *The Cacophony of Unbalance*, visualizing the dormant potential energy with five artworks and revealing the crippling tension caused by interaction between the internal world and the external world of the artworks. Individuation theory of Gilbert Simondon (1924-1989) proposes that being corresponds to heterogeneous series which are organized into a system which is neither stable nor unstable, but rather metastable, endowed with a potential energy wherein the differences between

- 2 Curated by by Sukyung HA and showcasing artists Ifie Sin, Bokyung Jun, and TEAM AI-G0, the exhibition was held at the Hall 1 from December 1 to 6, 2022.

퍼텐셜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³ 이처럼 전시에서 일종의 준안정상태인 퍼텐셜 에너지는 작품 자체에 내재한 것뿐만 아니라 작품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각기 다른 양상불을 보여준다.

전시에서 처음 마주하는 구기정의 응고라는 의미를 내포한 <Coagulation> (2022)은 이끼, 숲, 잔디를 촬영한 후 3D 렌더링 기술을 통해 생성된 디지털 이미지를 보여준다. 이 영상은 실제 자연보다 더 세밀하게 증강된 이미지로 관람객에게 시각적인 인지 교란을 일으킨다. 그 뒤로 두 벽면을

- 3 시몽돈은 1960년대부터 기술이 인간-기술-환경을 매개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술적 대상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기술과 인간 사이 공생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질베르 시몽돈의 개체화 이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재희 역, 『기술적 대상들의 존재 양식에 대하여』(서울: 그린비, 2011), 김재희, 『시몽돈의 기술철학: 포스트휴먼 사회를 위한 청사진』(파주: 아카넷, 2017) 참고.

series are distributed.³ The potential energy of a metastable state in the exhibition unveils not only the implicitness of the artwork itself but also different ensemble depending on interaction between artworks.

Coagulation (2022) by Gijeong Goo in the first section of the exhibition presents digital image created with 3D rendering technology after shooting real moss,

- 3 Since 1960, Simondon had seen that technology could be understood as a mediator within a relationship between humans, technology, and the environment. He had a positive perspective on human-technology coexistence, one built on a deeper understanding of technological subjects. Refer to the following books for the detail about his individuation theory: Gilbert Simondon, *On the Mode of Existence of Technical Objects*, trans. Jae-hee Kim (Seoul: Greenbee, 2011), Jae-hee Kim, *Gilbert Simondon's Philosophy of Technology: A Blueprint for A Posthuman Society*(Paju: Acanet, 2017).

가득 채우는 박고은의 〈트리오 A〉(2024)는 지상파 레이저 스캐너(TLS)로 기록된 핀란드 단풍나무의 미세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영상이다. 수만 개의 포인트 클라우드로 이루어진 데이터는 시각화된 색깔, 형태, 구조로 인해 숲처럼 움직이며 마치 자연의 '몸짓'처럼 보인다. 전시장의 오른쪽에 자리한 신승재의 〈소리 심기〉(2024)는 식물에 미세전류 센서를 이식하여 관람객의 물리적인 접촉이 사운드로 변환된다. 작가는 이 사운드를 '씨앗'으로 선보이는데, 씨앗은 관람객이 식물을 만질 때 발생하는 미세전류의 소리이자 이 소리를 경험하는 공간 그 자체가 된다. 그 뒤의 벽면에는 소수빈의 〈Vivisystem〉(2021)을 확인할 수 있다. 비비시스템은 자연발생적이거나 인위적임을 구분하지 않고 생명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것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관람객은 살아있는 식물과 인공적인 조화를 직접 이동시키며 작품 속 생태계에 능동적인 개입을 한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월에서 마주할 수 있는 서상희의 〈Between_(가상)정원〉(2024)은 아날로그로 대변되는 식물과 디지털로 표상되는 맵핑의 대비로 예술적 체험을 선사한다.

forest, and grass. The video's augmented image, which is far more detailed than the actual nature, induces a sense of cognitive dissonance in the audience. Goeun Park's video work, *Trio A* (2024), reorganizes subtle movements data of a tree recorded by the terrestrial laser scanner into the graphic. The data scan file used in the work is an artificial information which was recorded as a scientific figure and data according to the tree's movements, but deep dive into it allows the audience to find dynamic movements of the tens of thousands of point cloud like a living forest. Shin Seungjae's *Seeding Sound* (2024) transplants microcurrent sensor to plants to convert physical contact with the audience to sound. The artist represents this sound as a 'seed', which is the microcurrent sound generated by the contact between the audience and the plant and the space itself where the audience experience the sound. Next, *Vivisystem* (2021) by So Soo Bin. The term vivisystem encompasses entities with life-like characteristics,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ise naturally or are artificially created. The audience make active interference with the ecosystem of the work by moving living and artificial plants. Lastly, *Between_(virtual) garden* by SEO Sanghee showcases contrast

전시는 기술에 대한 새로운 관점, 즉 이전의 기술만능주의나 반기술주의와 같은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기술의 재정의를 요구한다. 그동안 기술에 대한 이해는 인류 발전을 위한 도구적인 시선이 일반적이었으며 예술에서도 기술은 비슷한 대우를 받았다. 하지만 지금의 기술과 예술의 융합에 대해서 기존의 논의들은 한계가 분명하다. 현대미술에서 기술의 사용은 이미 기존의 캔버스와 물감을 대신하는 새로운 매체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매체의 변화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미술에서 기술은 전시의 형식과 관람 방법 또한 쌍방향으로 변화시킨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대미술에서 기술은 그 자체로 작업의 직접적인 매개자가 되며 기술적 대상과 미학적 대상의 분리가 불가능해진다. 이를 전제로 전시는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미학적 사유를 제안하고 있다. 기술과 예술에 대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접근 방식이 아니라 평등한 위치의 주체로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몽동이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개체를 발생시킨 생성 작용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처럼 전시는 인간과 기술 그리고 예술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역동적인 관계 맺음에 주목한다.

between plants, the symbol of analogue, and projection mapping, representative of digital world, providing the audience with artistic experience.

The exhibition invites a paradigm shift in our perspective on technology. It transcends the binary of technophilia and technophobia, seeking a redefined understanding of technology. Technology has been seen as a tool for human progress, and the art world has been no exception. Yet, the current discourse surrounding art and technology reveals a limitation in this viewpoint. Technology isn't merely a new medium replacing canvas and paint; it's a transformative force, upending traditional exhibition formats and reshaping the very way we experience art. Therefore, the modern art scene positions technology as a mediator, inextricably interwoven with the artwork itself. Technological and aesthetic subjects become inseparable entities. Under the premise, the exhibition proposes new way of thinking on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technology: an approach where technology and art are recognized as equal partners, not a hierarchical relationship. As Gilbert Simondon claimed that we should focus on the generative process to understand the essence of being,

참여작가 구기정, 박고은, 서상희, 소수빈, 신승재는 3D 렌더링 기술, 지상파 레이저 스캐너(TLS), 데이터, 증강현실, 맵핑 등 작업의 기술적인 면을 제외하고도 '식물'이라는 시각적 키워드로 만나게 된다. 구기정의 이끼, 숲, 잔디, 박고은의 핀란드 단풍나무, 서상희와 소수빈, 신승재의 식물들이 그렇다. 식물은 표면상으로는 기술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자연물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기술과 식물은 의외로 공통점이 많다. 참여 작가의 작업 매체가 '식물'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전시의 서문에서 밝혔듯, 전시는 기술이 '독'이면서 '약'으로 기능하는 현시대에 기술과 인간의 상호 공존을 위한 새로운 관계성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식물의 가치 역시 기술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태도와 관점에 따라 약초, 화초, 독초, 잡초로 달라진다. 잡초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식물 외의 여러 풀을 통칭하는데 그 이름에서도 인간의 편이가 함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잡초는 정원이나 논밭에서는 성가신 존재로 여겨지지만 생태학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토끼풀은 뿌리로 흙을 움켜쥐어 토양 침식을 방지한다. 역시 흔하게 볼 수 있는 민들레는 동의보감에서도 염증 치료에 사용했다는 기록이

the exhibition highlights continuous interaction and dynamic relationship building between humans, technology, and art.

The artists, Gijeong Goo, Goeun Park, SEO Sanghee, So Soo Bin, Shin Seungjae, have a common keyword, 'plant', besides technological aspects such as 3D rendering technology, terrestrial laser scanner, data, augmented reality, and projection mapping. It is shown in moss, forest, grass by Goo, Finnish maple tree by Park, various plants by SEO, So and Shin. While on the surface, plants may appear as a representative of nature at the antipode to technology, a closer look reveals that technology and plant have a lot in common. The artists' choice of 'plant' as a medium is far from accidental. As the exhibition's preface suggests, it raises a question about new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technology for their co-existence in the current era where technology works both as poison and medicine. Likewise, the value of plant hinges on our perspective, such as medicinal herb, poisonous herb, and weed. Weeds refer to various grass, plants not valued for use. Weeds are seen as a nuisance in a garden or farmland, but it plays a vital role in the ecosystem. Clovers anchor the

존재하는 약재이다. 갈대나 억새, 모시풀은 최근 화석연료의 대체 에너지인 바이오에너지의 원료 작물로 주목받고 있다. 이 밖에도 잡초는 곤충이나 새들에게 서식지와 먹이를 제공하며 생물종 다양성을 높이는 생태계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잡초는 상호 연결된 생태계라는 그물망에 대한 이해의 단초를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잡초는 더 이상 이름 없는 쓸모없는 풀이 아닌 새로운 식물적 주체라는 인식론적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수만 년 동안 인류와 공생을 유지하며 공진화해온 잡초의 일대기는 인간과 기술의 새로운 관계 정립에 유의미한 참고 사례가 되지 않을까.

《불균형에서 오는 퍼텐셜 에너지(The Cacophony of Unbalance)》는 기술과 공존하는 인간의 세계에 대해 새로운 방식의 소통을 제시하고 정서적인 공명이 동행하기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본질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기술에 대한 일방적인 열망이나 두려움과 같은 극단적인 사고는 인간 및 환경과의 관계성에 대한 오해로 빚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기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기술적 대상 존재 방식의 고유성을 이해할 때 인간과 기술의 관계가 공진화할 수 있을

soil with its roots to prevent soil erosion. Dandelions were used for inflammation treatment documented in the Korean traditional medicine book, Dongui Bogam. Reeds, silver grass, and ramie recently have emerged as a source of bioenergy, an alternative to fossil fuels. Weeds provide crucial habitat and food for insects and birds, contributing to the biodiversity as a member of ecosystem. Their undervalued existence unlocks the secrets of a complex web of interconnectedness. Weeds are undergoing an epistemological transformation, transitioning from a nameless nuisance to a new botanical player. The history of weeds can be a useful reference for redefining our relationship with technology as weeds have co-evolved alongside human for tens of thousands of years.

The Cacophony of Unbalance suggests a new way of communication to human world coexisting with technology and leads us to go along with sentimental resonance. To that end, we must reframe our understanding of technology's essence because the extremes of one-sided aspiration or unconditional fear on technology stem from fundamental misunderstanding of our relationship with the environment. When we truly understand the

것이다. 서로 다른 지층에서 기술과 함께하는 예술이 어떠한 관계 맺음으로 그 미감을 드러내고 있는지 참여작가 구기정, 박고은, 신승재, 소수빈, 서상희의 작업으로 확인해보자. 새로운 관점으로 기술적 대상을 바라보며 기술적 주체 간의 양상불을 선보이는 《불균형에서 오는 퍼텐셜 에너지(The Cacophony of unbalance)》를 통해 정서적인 공명(共鳴)의 순간을 맞이하기를 바란다.

originality of how technological entities exist, we can foster a co-evolutionary relationship with technology. The exhibition invites us to delve into the artists' works where art, intertwined with technology on different level, show the beauty of relationship building. I hope the audience, with the new perspective on technological subjects, face a moment of sentimental resonance in the exhibition where technological entities ensemble unfolds.

- // 참고문헌
 // 김재희, 『시몽동의 기술철학: 포스트휴먼 사회를 위한 청사진』, 파주: 아카넷, 2017.
 // 리처드 메이비 저, 김영정 역, 『처음 읽는 식물의 세계사』, 고양: 탐나는 책, 2022.
 // 존 카디너 저, 강유리 역, 『미움받는 식물들』, 파주: 윌북, 2022.
 // 질베르 시몽동 저, 김재희 역, 『기술적 대상들의 존재 양식에 대하여』, 서울: 그린비, 2011.

- // Reference
 // Jae-hee Kim, *Gilbert Simondon's Philosophy of Technology: A Blueprint for A Posthuman Society*, Paju: Acanet, 2017.
 // Richard Mabey, *Weeds: In Defense of Nature's Most Unloved Plants*, trans. Kim Young-jung, Goyang: Coveted book, 2022.
 // John Cardina, *Lives of Weeds*, trans. Yuri Kang, Paju: willbook, 2022.
 // Gilbert Simondon, *On the Mode of Existence of Technical Objects*, trans. Jae-hee Kim, Seoul: Greenbee, 2011.

2024. 4. 25 (Tue) - 7. 7 (Sun)

The Cacophony of Unbalance

불균형에서 오는 매질적 에너지

2024. 4. 25 (Tue) - 7. 7 (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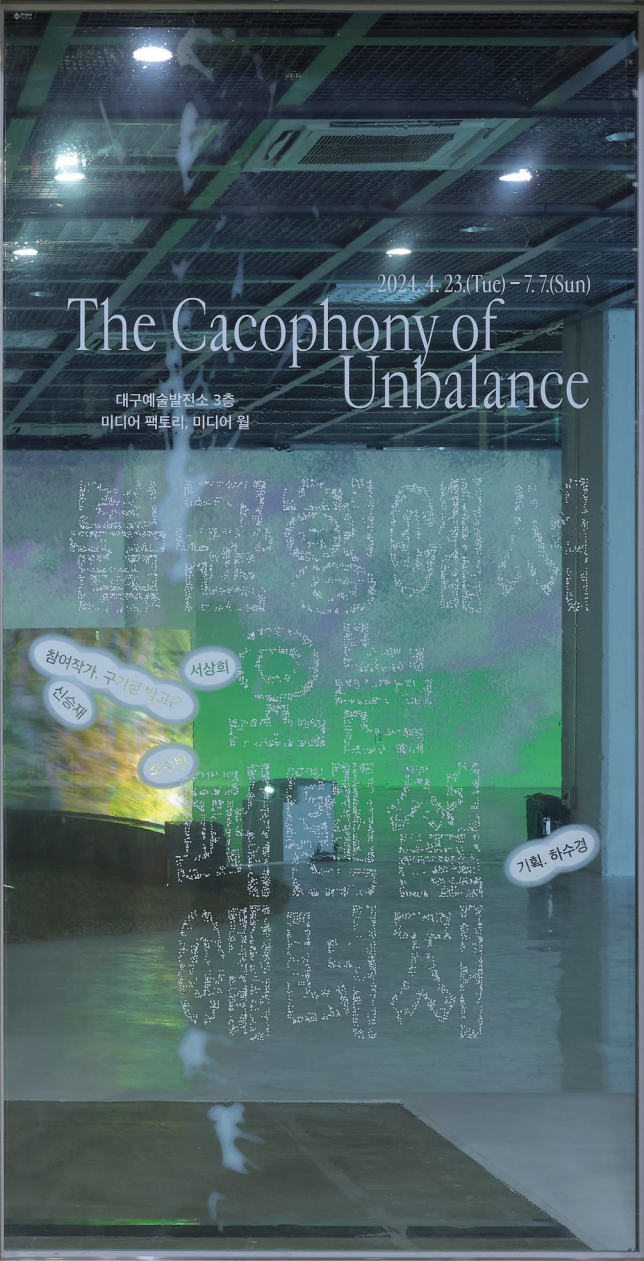
2024. 4. 25 (Tue) - 7. 7 (Sun)



2024. 4. 23.(Tue) - 7.7.(Sun)

The Cacophony of Unbalance

대구예술발전소 3층
미디어 팩토리 미디어 월



《불균형에서 오는 퍼텐셜 에너지》는 이질적인 창조되는 양상을 바라보며 기술의 시대에 걸맞게 모색한다. 예술은 어김없이 기술의 시대에 잔존 문제를 동시대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질주하는 실재들에 적합한 새로운 사유의 언어가 필요한 기능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기술과 상호 방식의 소통과 정서적 공명의 관계는 어떻게

전시는 근대적 예술 개념과 관습적 장르 구분 대변하는 다섯 점의 융합예술작품을 소개한다. '자연'과 '기술'의 요소가 혼종, 변형의 방식으로 존재로 자리한다. 전시 안에서 작품은 다른 작양상불을 형성하고 작품에 내재하는 잠재성은 작품들이 하나의 양상불로 변조되어 가는 관계 될지, 무의미한 소음이 될지는 작품 사이의 유 것이다. 전시 안에서 서로 다른 것들이 모였을 보면, 작품 속에서 기술성이 내포하는 양식에

물리학 이론에서 일컫는 '준안정상태'는 안정 그 어느 경계의 상태이다. 언제 다른 상태로 전 어느 순간 불균형이 생기면 잠재되어 있던 에 각각 다르게 참발된 작품들이 모인 《불균형에 준안정상태이다. 오히려 안정되거나 평형된 상 깔려있고, 내부에서 비대칭적인 두 극단 사이 새로운 차이와 그 관계로부터 생기는 내적 공 이어질 수 있을까?

자연과 기술이 함께하는 현상의 구도를 동시 작품들의 새로운 관계맺음을 바라보며, 궁극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과 담론, 그리고 기술과 지금 어떠한지를 돌아보길 바란다.

기획. 하수경

구기정 Coagulation

// <Coagulation>
2022
단체널 4k 비디오, 폴리카보네이트
리어스크린, 스테인리스 조형, 빔 프로젝션
가변크기
7분 30초

Gijeong Goo *Coagulation*

// *Coagulation*
2022
Single Channel 4K Video,
Polycarbonate rear screen,
Stainless installation,
Beam projection
Dimension variable
7min 30sec

구기정은 실재하는 자연 풍경을 디지털 기술로 가공하고 이를 물리적 공간에서 감각 가능하도록 배치하는 작업을 시도하며 인간과 기계, 자연 사이에서 발생 가능한 관계들에 주목한다. 그는 자연풍경 이미지를 3D 렌더링 기반의 디지털 이미지로 재현하고 이미지에 다른 차원의 가상의 정보를 부여한다. 디지털 이미지로 재현된 실재의 풍경은 실재와 가상의 경계에 위치하여 모호한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작가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다양한 층위의 자연을 작업의 대상으로 삼으며 실제 자연과 디지털 이미지의 자연을 뒤섞어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동시대 자연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참조한다. <Coagulation>는 실제 이끼, 숲, 잔디 등을 매크로 렌즈, 고해상도 카메라로 촬영한 후 3D 렌더링 기술로 합성, 왜곡하여 생성한 디지털 이미지, 살아있는 잔디, 반원의 조형물로 구성된 혼합형 설치작업이다. 관람자는 바닥에 펼쳐진 살아있는 잔디를 직접 밟고 그 위에 놓인 반원의 조형물을 몸으로 체험하며 스크린 속 증강된 이미지를 감상할 수 있다. 이때 작품은 이질적이고 혼종적인 요소들의 흔적이 상호작용하는 사이 공간으로 존재한다. 이는 평면과 입체의 사이,

Reconstitution of awareness and moment of potential crack

Gijeong Goo transforms natural landscapes with digital technology presenting them in physical space for a sensory experience, focusing on possible relationships between humans, machine, and nature. He translates the real landscapes into 3D-rendered digital images, layering them with virtual information. This creates a captivating space at the crossroads of the real and virtual worlds, where the digitally reproduced landscapes evoke ambiguous sensory experiences. With the subject of diverse states of nature that we are facing in the current era, he merges real and virtual nature to create new landscape, bringing up the new definition on the contemporary nature. *Coagulation* is an installation work, a convergence of the digital image, living grass, and semicircular sculpture. The composite and distorted digital image was created with 3D rendering technology after shooting real moss, forest, and grass with macro lenses and high-resolution cameras. The audience enjoys the augmented image on the screen by stepping on the living grass and physically experiencing the semicircular sculpture. At this time, the work exists as a space where traces of heterogeneous and hybrid elements interact. This implies a boundary that implies relationship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스틸과 무빙의 사이, 실제와 환영의 사이에서 관계성과 차이를 내포하는 경계를 함축한다. 작품의 사이 공간은 경계에 대한 인식과 함께 혼종성과 이질성을 생산하기 위한 저항의 몸짓을 반영한다. 스크린에 동동 떠다니는 증강된 이미지와 거친 잔디와 차가운 조형물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무수한 요소들이 공존하며 또 다른 가능성을 내포하는 영역에 대한 시각을 은유적으로 내포한다. 영상에 등장하는 디지털 이미지의 자연은 실제 자연보다 더 사실적이고 세밀하게 증강된 모습이다. 작가는 영상을 보는 이로 하여금 실존하는 이미지인지 혹은 디지털로 생산된 이미지인지 교란을 일으켜 딜레마 상태에 빠트린다. 화면 속에서 멈춤 없이 유동하는 이미지는 기존의 인식에 혼란을 줌으로써 관람자의 몰입을 유도하며 동시에 이질성을 인식할 수 있는 잠재적 균열의 순간들을 창출한다. 관람자는 이미지의 본질과 대상 인식 사이에 발생하는 엇박자 안에서 자신의 시각 체계를 돌아보며 의심하고 확신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자연과 기술로 만들어진 미디어 환경의 관계를 스스로 재해석 및 재고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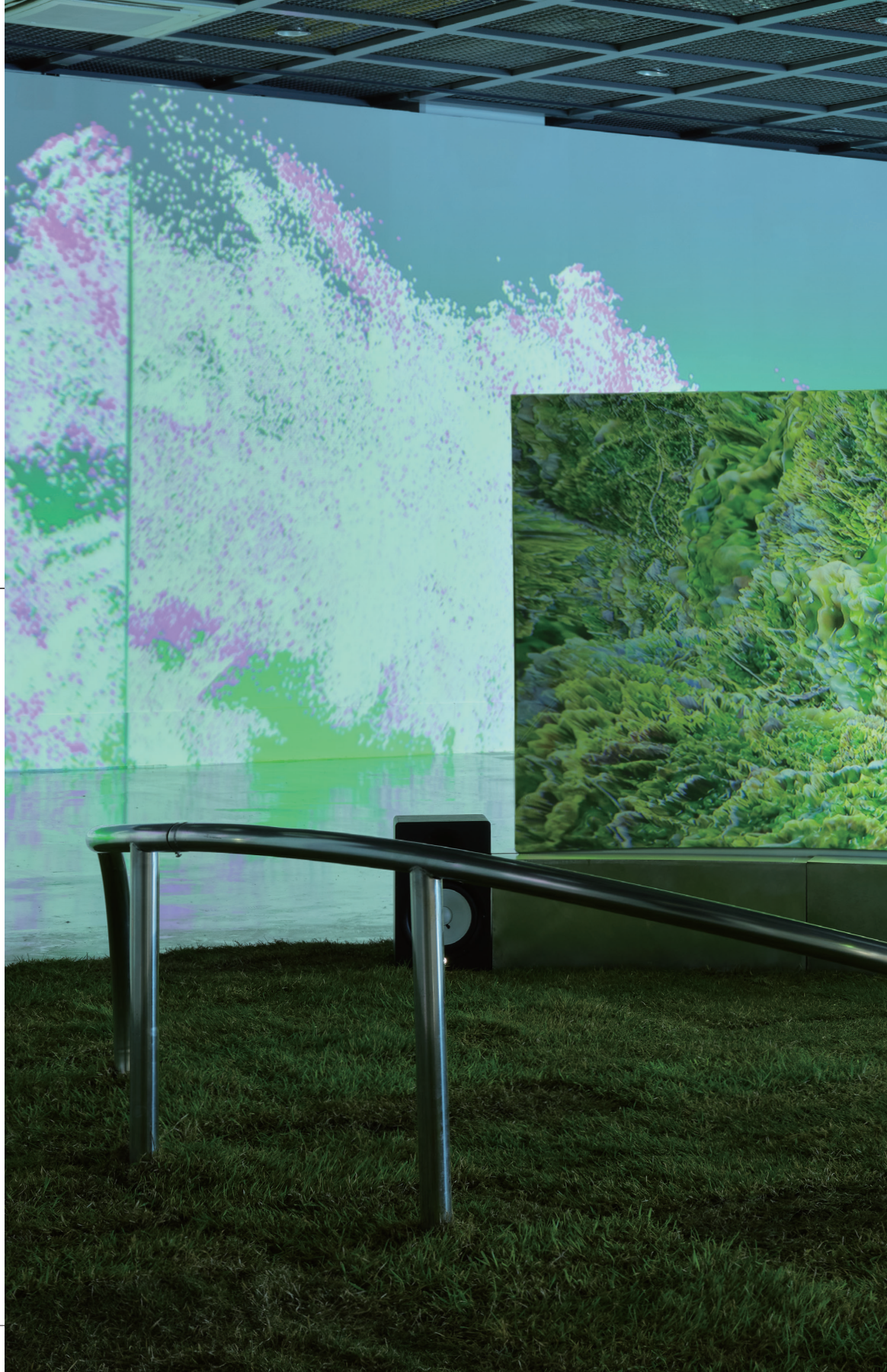
flat and the three-dimensional, between the still and the moving, and between the real and the illusory. The space between the works reflects a gesture of resistance to produce hybridity and heterogeneity along with awareness of boundaries. The augmented images, rough grass, and cold sculptures floating on the screen metaphorically imply a view of an area where countless elements arising from various relationships coexist and imply other possibilities. The video presents digitally created nature scene that is more realistic and hyper-augmented than the actual world. The artist crafts a dilemma by blurring the line between real and digital, leaving the audience captivated yet unsure of what they see. The ever-shifting image on the screen disrupts the audience's existing awareness to propel them towards a state of immersion and simultaneously creates potential fragile moments where the audience become aware of heterogeneity. Facing mismatch between the essence of image and their recognition of the subject, the audience reflect, suspect, and confirm their own visual system. Ultimately, they reconsider and reinterpret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technologically produced media environment.

/* 작가는 '변위 지도'라는 기술을 통해 사진 이미지의 정보를 활용하여 이미지의 사실적인 질감을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한다. 변위 지도(displacement mapping)는 사진 이미지 정보를 활용하여 평면 이미지의 밝은 부분은 튀어나오게 하고, 어두운 부분은 들어가고도록 계산해서 입체적인 높낮이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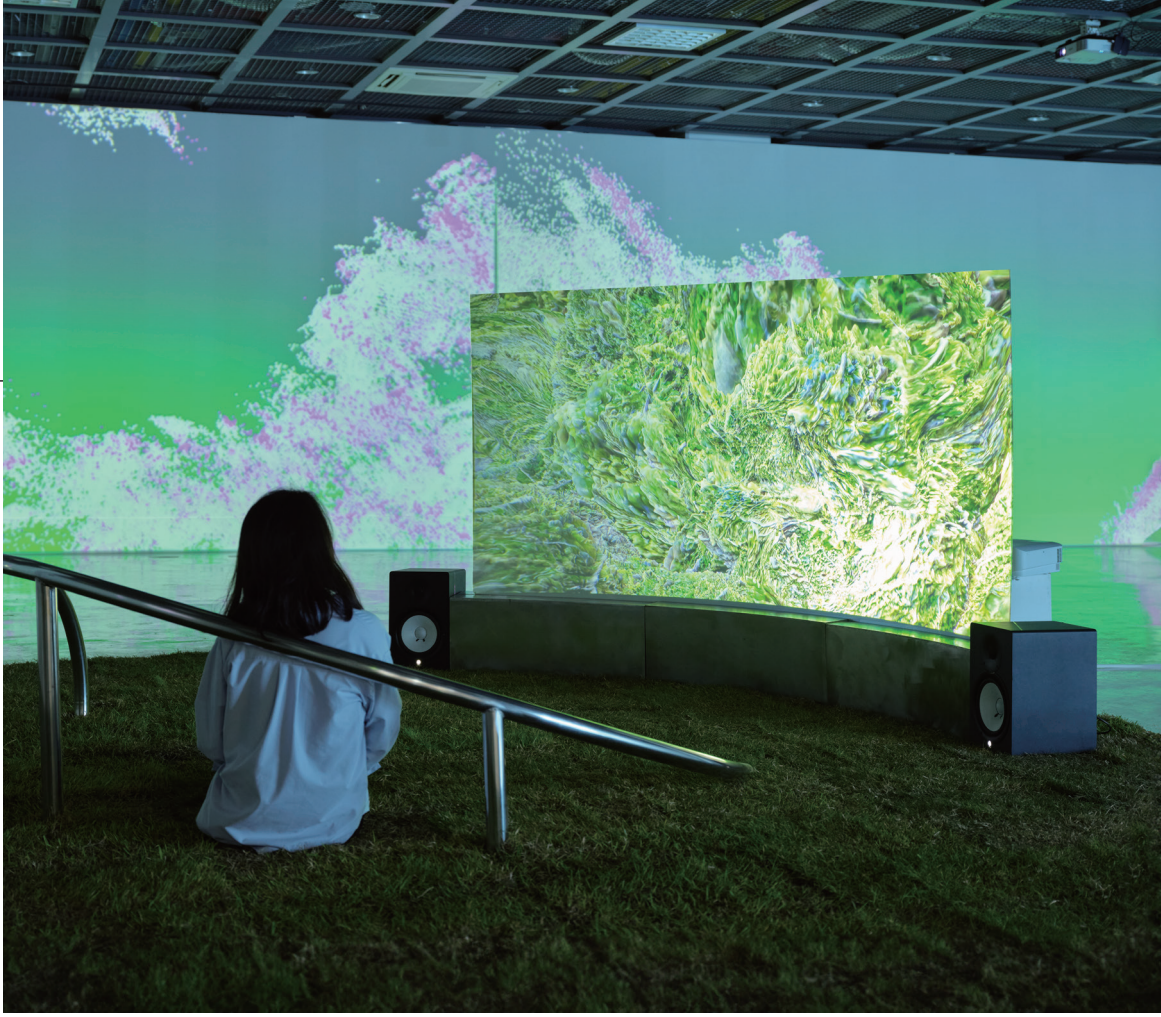
/* With the 'displacement mapping' technique, the artist focuses on creating realistic texture of the image. The technique analyses the image information to determine which areas of the flat surface should be pushed out (lighter areas) and which should be recessed (darker areas), making the image feel more three-dimensional. */















박고은 트리오 A

평균형에서 오는 퍼텐셜 에너지

// <트리오 A>
2024
지상파 레이저 스캔자료, 2채널 영상
약 10분

Goeun Park *Trio A*

The Cacophony Of Unbalance

// *Trio A*
2024
3D Laser-Scanner Data,
2-Channel Video
About 10min

.....
식물의 움직임을 경유하는 우리의 시선

박고은은 움직임과 공간의 관계를 기록하는 인포메이션 디자인, 데이터 시각화, 패턴을 만드는 것에 관심을 두며 서울과 암스테르담에서 작가 겸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작업은 주로 도구/공간에 내포된 특정한 움직임을 발굴하고 도구가 가진 퍼포먼스적인 특징을 시각화한다. 도구의 동적인 패턴을 만드는 그의 작업은 우리가 쉽게 지나쳤던 도구들의 일상적인 '움직임(gesture)'을 인식하고 재해석하여, 물체와 인간 사이에 시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이다. 작가는 움직임을 기록하기 위하여 연속된 움직임을 구성하는 각각의 제스처와 움직임이 진행되는 시간과 공간을 추적하며 순간적인 동작을 그래픽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트리오 A>는 지상파 레이저 스캐너(TLS)로 기록된 나무의 미세한 움직임 데이터를 그래픽으로 재구조화한 영상 작업이다. 작품은 과학자들이 자연 식물의 움직임을 관찰, 기록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들의 색깔, 형태, 구조를 대상으로 삼는다. 나무의 움직임을 과학적인 수치, 데이터로 기록한 스캔 파일은 인공적인 정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수만 개의 포인트 클라우드가 숲처럼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다. 작가는 식물의 연속된

.....
Our gaze going through the plant's gesture

Goeun Park works on information design, data visualization, and pattern to record the relationship between movement and space based in Seoul and Amsterdam. She discovers specific movement within tools or spaces, visualizing the tool's performance characteristics. Creating dynamic patterns of tool, her work recognizes and reinterprets these often-overlooked 'gestures' to build a poetic relationship between the object and humans. She follows each gesture of constant movement and tracks its time and space to record the movement, translating the momentary movements into graphic representations. *Trio A*, a video, reorganizes subtle movements data of a tree recorded by the terrestrial laser scanner into the graphic. The artwork emphasizes color, shape, and structure of data that scientists utilize to observe and record the natural plant movement. The scan file recording the tree's movement in a scientific figure and data is artificial information, but one step closer look will allow you to experience dynamic movement of thousands of point cloud like a forest. Ultimately, the work suggests that plants are metastably changeable within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nature, technology, and humanity, not static

움직임을 구성하는 각각의 제스처를 분석하고 시스템화하여 움직임에 대한 형태를 만들고 그것들을 조합하여 그래픽으로 구현한다. 작품은 자연의 '몸짓(Gesture)'의 의미와 멀리서 바라보았을 때 보이지 않지만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 미세한 움직임, 자연의 생명력에 주목한다. 작가는 데이터 파일 속 정보를 해독하고 구조를 재편하여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주한다. 변주된 데이터는 그래픽으로 파편화되어 형광빛의 강렬한 색면 사이사이로 비집고 나와 해방된다. 파편화된 데이터들은 그래픽적으로 패턴을 이루며 서로 흡수하고 뒤섞이면서 이미지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작품 속 그래픽 요소는 흩어지고 모이며 서로 접하는 다른 요소들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호흡하는 막으로 존재하게 된다. 영상은 빛에 일렁이며 내부에서 빛의 간섭이 일어나기도, 빛의 일부가 투과하여 화면 깊숙이 스며들며 반사가 되기도 한다. 작품을 구성하는 각각의 파편들은 틈새와 함께 얽히는 구조 속에서 실제 보이지 않는 저 너머의 물질적인 층위를 은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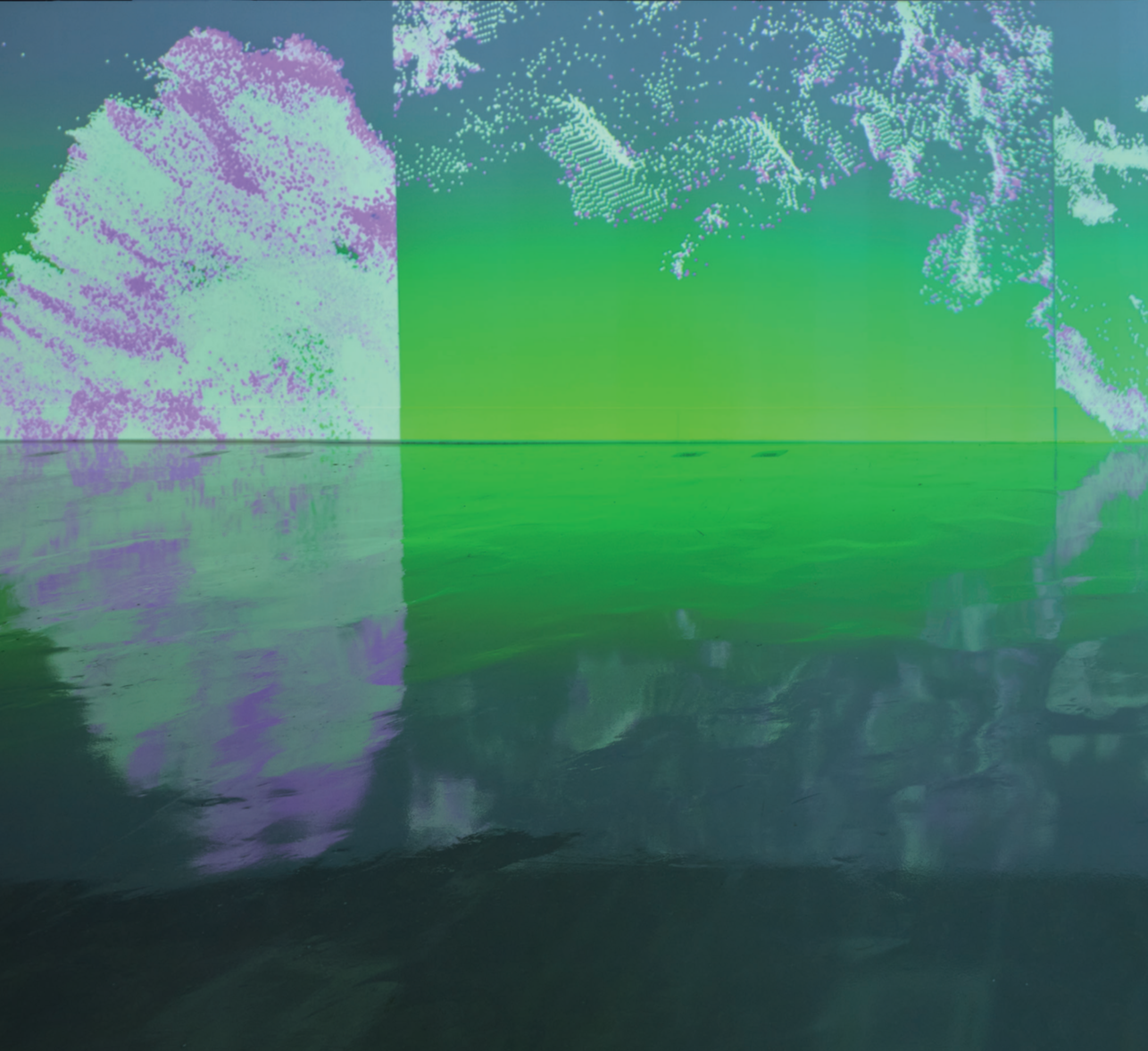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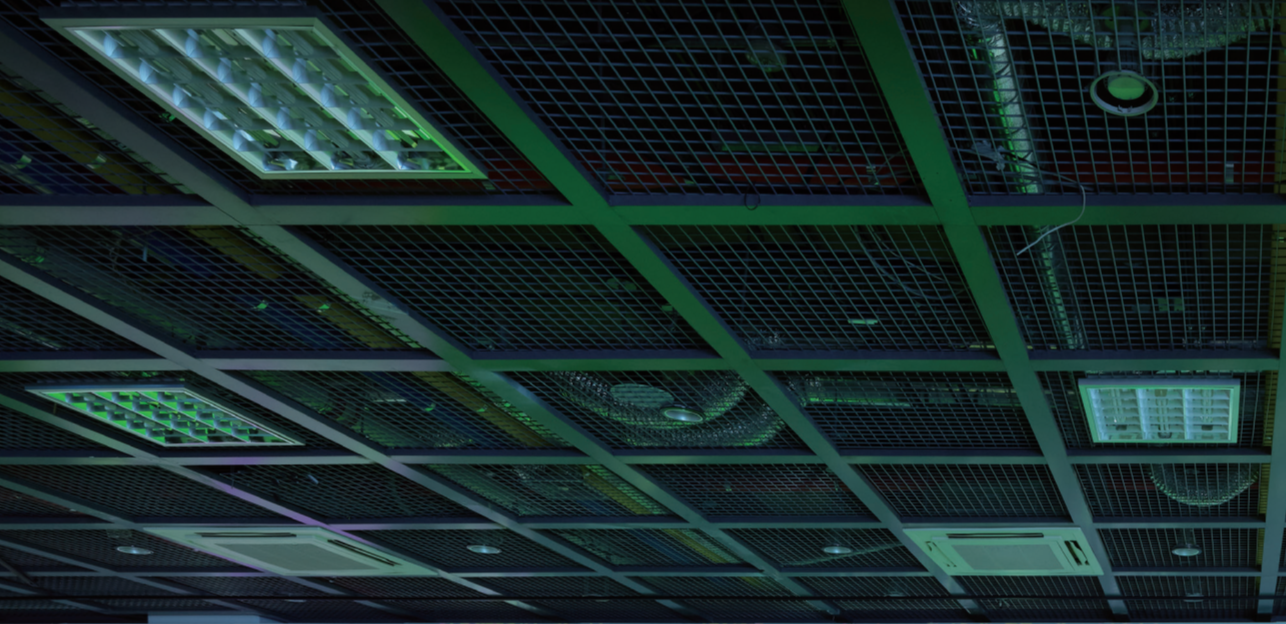
and unchanging. Focusing on the meaning of the nature's 'gesture', this work highlights subtle movements, vitality of nature, and invisible things we can truly appreciate only with a keen eye. The artist interprets information of the movement data file and reshapes its structure, rebuilding the data as a new design. The recreated data is fragmented into graphic, emerging from gap between intense fluorescent color surfaces, finally liberated. Building graphic patterns, these fragmented data then build graphic patterns, absorbing and merging with one other, and dissolving and restructuring images. Constantly scattering and gathering, the graphic elements in the work interact with other elements facing them and exist as a layer for harmonization. The video shimmers with the inside light interference or reflects with deep light penetration. Each fragment within the work acts as a metaphor for the invisible material level of a higher realm in the structure where it is interwoven with the g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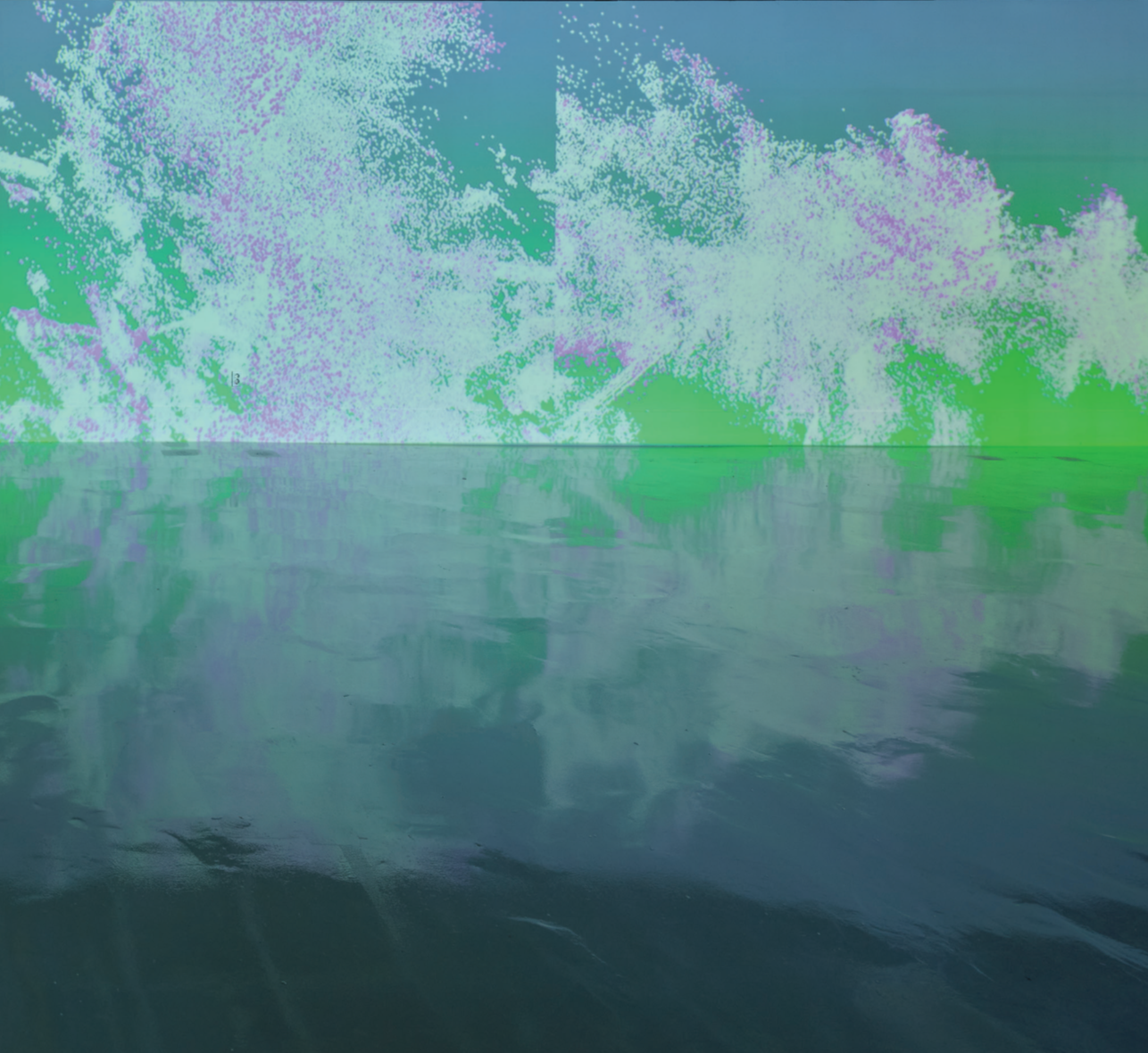
/* 지상파 레이저 스캔 데이터 출처:
Eetu Puttonen, National Land
Survey of Finland
지상파 레이저 스캐너는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움직이는 나무, 물, 대지와 같은
자연을 시각적으로 기록하는데 쓰이는
3D 스캐너의 한 종류이다. */

/* 영상 텍스트 출처: The dignity
of living beings with regard to
plants, (Federal Ethics Committee
on Non-Human Biotechnology ECNH)
영상은 2016년 8월 24일, 핀란드에 있는
단풍나무가 해가 뜨고, 지는 시간 동안
스스로 움직임이는 모습을 스캔한 43개의
데이터 파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데이터 파일은 약 16,000개의 작은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루어져 있다. 해당 영상의
모든 그래픽은 Cloud Compare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만들어졌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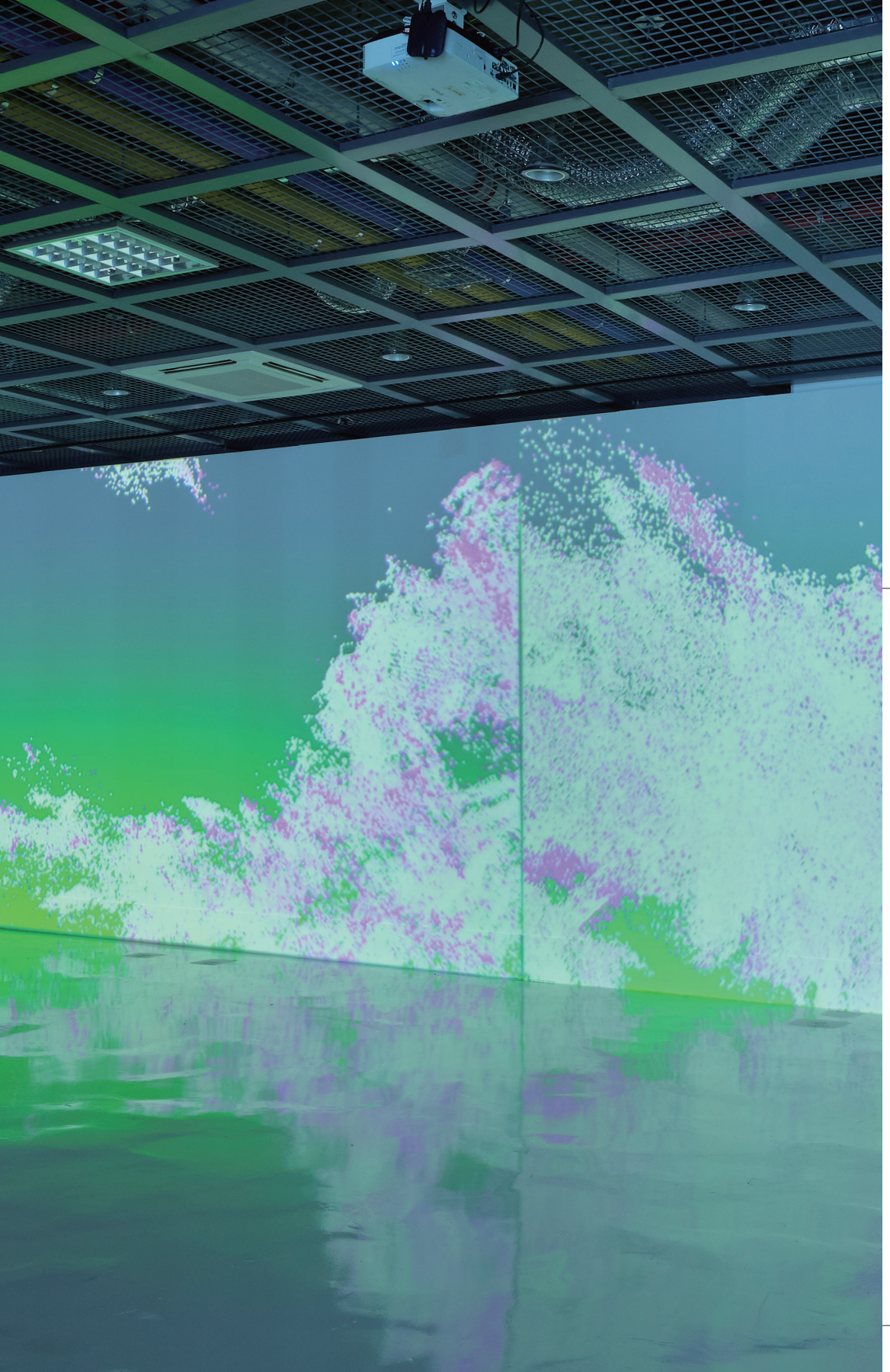
/* Source of the terrestrial
laser scanner data: Eetu Puttonen,
National Land Survey of Finland
Terrestrial laser scanner is
a 3D scanner to record slowly
moving nature such as trees,
water, and terra firma over
a long period of tim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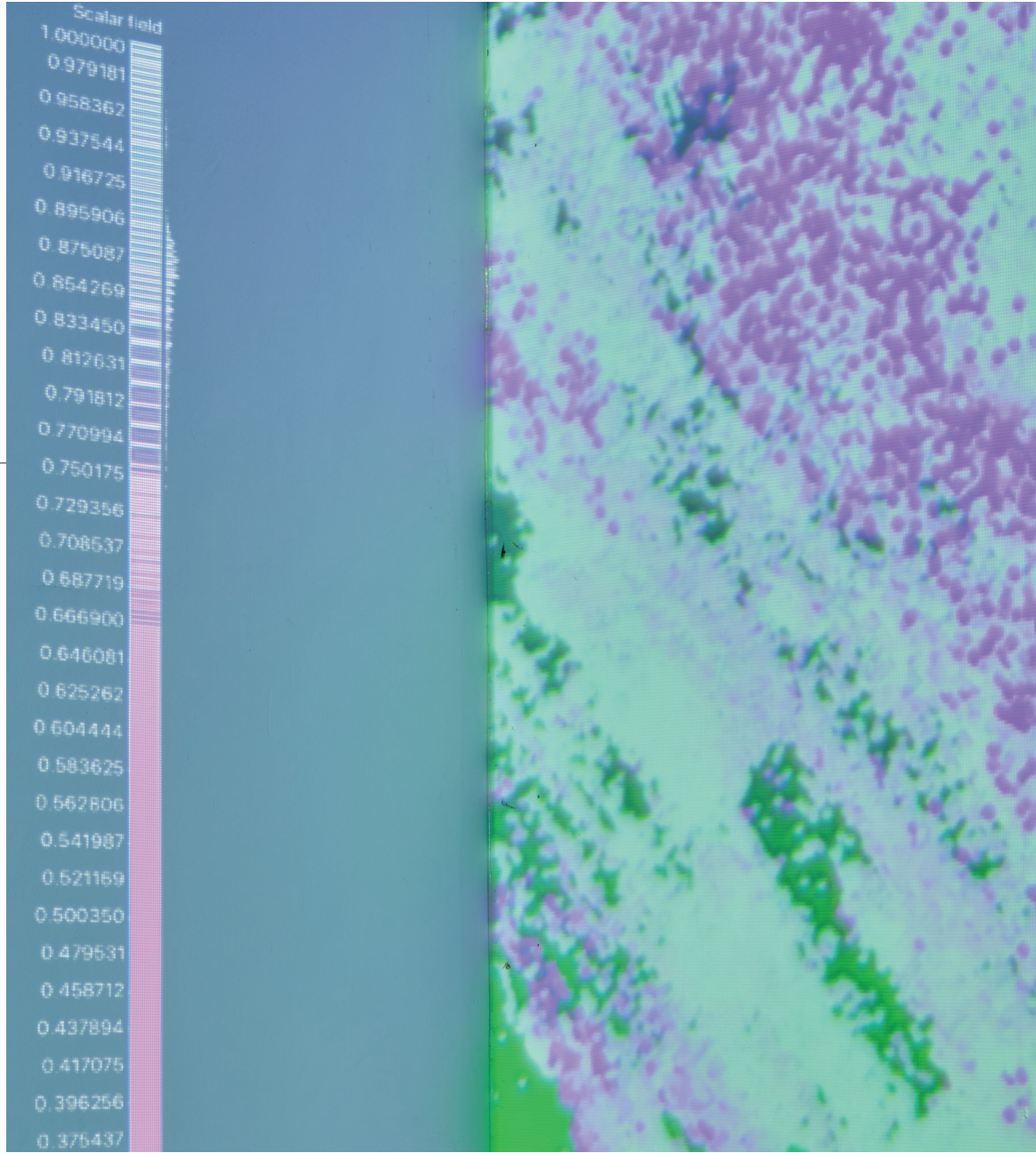
/* Source of the video text:
The dignity of living beings
with regard to plants,
(Federal Ethics Committee on
Non-Human Biotechnology ECNH)
The video is composed of 43 data
files scanning the maple tree in
Finland, moving by itself from
sunrise to sunset, and each data
file is composed of about 16,000
small point clouds. All graphics
in the video was created with
Cloud Compare progra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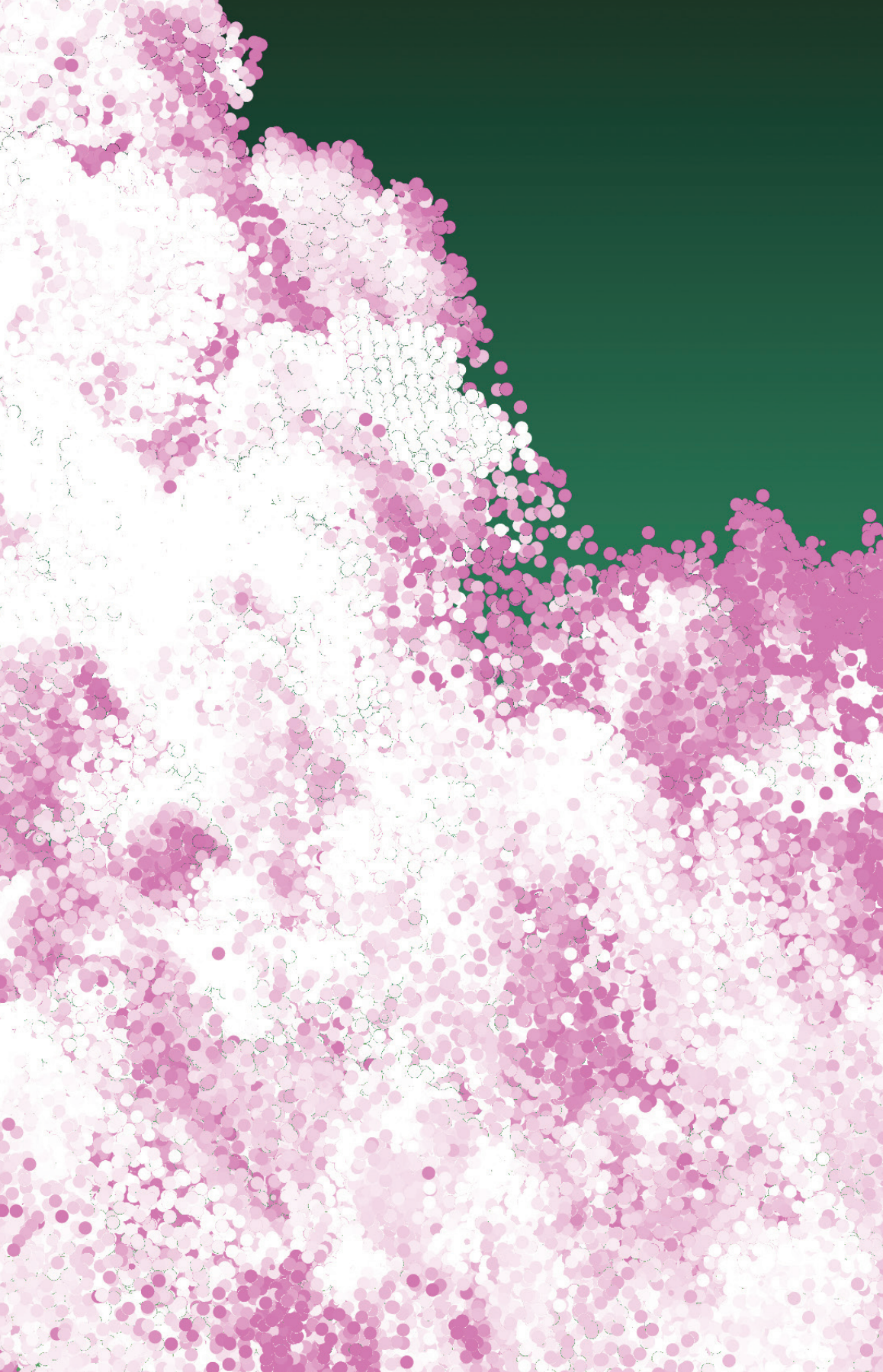












서상희

Between_(가상)정원

// <Between_(가상)정원>
2024
식물, 4채널 영상
가변설치
3분 30초

SEO Sanghee

Between_(virtual)garden

// *Between_(virtual)garden*
2024
Plant, 4-Channel Video
Dimension variable
3min 30sec

.....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불투명한 중첩

서상희는 현실과 가상, 디지털과 아날로그와 같이 서로 구별되는 것 간의 경계들이 만들어내는 다른 공간, 그리고 서로 다른 것이 만나 충돌하여 생성되는 에너지와 사건, 무한한 중첩된 가치들에 주목한다. 작가는 현실 공간에 가상의 자연환경을 구현하고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와해하여 감각의 확장과 몰입을 통해 실제와 상상의 경계에서 자연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한다. 그의 작업은 현실의 물리적 공간에 가상이 스며드는 과정을 통해 자연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하는 상상의 공간으로 확장된다. (Between_(가상)정원)는 아날로그를 상징하는 자연의 오브제인 식물을 다양한 높이와 간격으로 배치하고, 디지털의 대표적 요소인 컴퓨터를 활용한 인공적 빛과 회화적 표현이 가미된 영상 이미지를 결합한 영상 설치작업이다. 작품은 실제 살아있는 식물과 작가가 상상한 식물들이 한 공간에 머무르면서 가상의 정원을 구축한다. 각각 다른 위치에 매달려있는 식물은 관람자가 바라보는 위치, 시점에 따라 모습이 변화하고, 식물 요소 간의 간격과 위치는 새로운 관계와

.....
Opaque overlap of analogue and digital

SEO Sanghee explores the boundaries between two contrasting things such as reality and virtual reality, digital and analogue, revealing energy, events, limitless overlapped values that emerge from their collision. She establishes virtual nature environment in a physical space and shatters the boundary between the real and virtual, suggesting a new way to approach nature at the boundary of the real and imagination through expansion of sensory perception and immersion. Her work expands to imaginary space where the audience have new experience about the nature as the virtual world seamlessly blends with the physical world. *Between_(virtual) garden*, a video installation work, displays plants, the object of nature which is the symbol of analogue, at varying heights and distance, and combines artificial lights controlled by computer, a representative of the digital realm, with video images with pictorial expression. The artwork establishes an artificial garden as the living plants and imaginary plants coexist within a single space. Individual plants, hanging at varying locations, transform their shapes in response to the audience's position and viewpoint, and distance between plants and

비율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형성되는 풍경은 레이어를 중첩해나가는 과정의 반복을 통해 사이 영역을 유동적으로 증식해나간다. 이때 사이를 매개하는 영역은 혼종적이고 이질적인 것들이 공존하는 경계이며, 존재하지만 어느 공간에도 속하지 않는 자유로운 지점이다. 감각적 체험은 가능하나 물리적 존재성은 지니지 않는 가상 정원과 살아있는 식물로 이뤄진 정원의 경계에서 관람자는 몰입, 경험, 연결을 경험하며 실재와 가상이 연결되는 어떤 지점에 진입하게 된다. 가상과 현실이 만나는 경계 지점에서 작품 속 가상 식물은 실제 식물과 만나 불투명해지고 식물에 투사되는 이미지는 실제 식물에 변형을 가하여 또 다른 자연의 모습을 형성한다. 이때 관람자는 실제 식물에 중첩된 3차원 그래픽 식물들 사이의 틈 공간을 돌아다니며 실재와 가상이 함께 만들어내는 불투명한 망에서 하나의 레이어로 자리한다. 그리고 실제 식물과 가상 풍경과 공간 안에서 교차하며 작품 속에서 하나의 대상을 구성하는 일부분으로 작용한다. 작가는 우연적인 방식으로 서로 다른 요소들이 만나 충돌하여 생성되는 어떤 페넨셜 에너지에 시선을 두며, 이때 발생하는 틈 사이에서 발생하는

their location create new relationship and proportion. This dynamic arrangement constructs a landscape that flexibly multiplies its border area through overlapping layers. The intermediate area between them is a boundary with heterogenous and different things, clearly existing yet as a free point that belongs to no singular space. At the boundary between the real garden with living plants and the virtual garden giving sensory experience but without physical existence, the audience experience immersion and connection, entering the point where the reality and the virtual world intertwine. At the boundary between the virtual and real world, the living and artificial plants meet. While the latter become opaque, the overlapping image on the living plants creates a novel nature. As the audience walk around the gaps between real plants and their overlapping 3D graphic counterparts, they become one of layers in an opaque net generated by both the real and virtual worlds. Then, they act as a part of the subject within the work, crossing the real plants and virtual landscape in one space. By highlighting the potential energy generated from the coincidental collision between contrasting elements, the artwork explores a novel aesthetic experience. The work invi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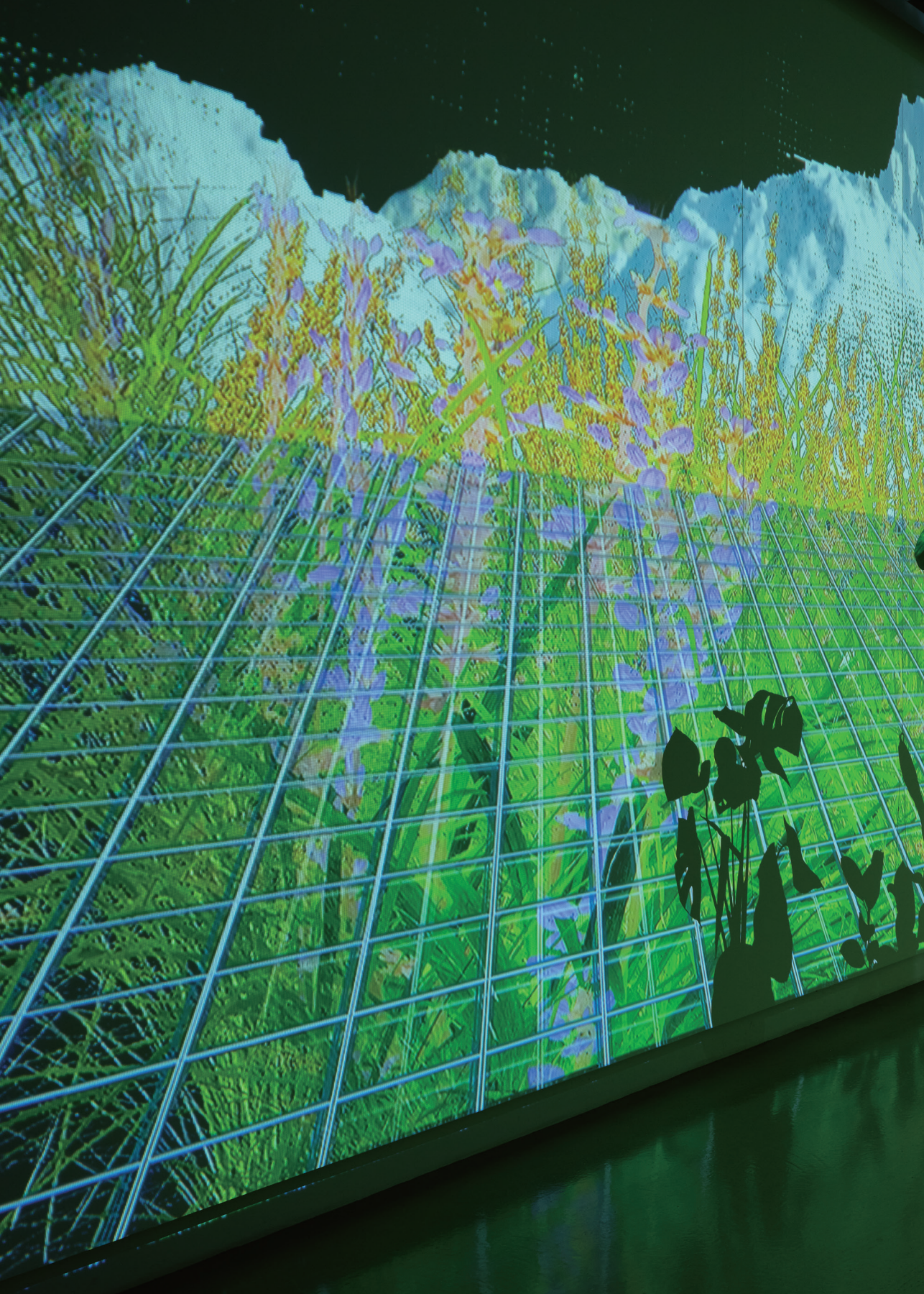
새로운 미적 경험을 모색한다. 작품은 디지털 미디어의 차가운 속성에
자연의 아날로그적 감성이 주입된 가상 정원 안에서 새로운 관계성을
발견하는 사유를 확장한다.



the audience to embark on a contemplative journey
to find a novel relationship within the artificial
garden, a combination of coolness of digital media
with analogue sensibility of nature.













소수빈

Vivisystem

// <Vivisystem>
2021
식물, 마그넷, 코크, LED
120x120cm
3ea

So Soo Bin
Vivisystem

// *Vivisystem*
2021
Plant, Magnet, Cork, LED
120x120cm
3ea

무계중심을 옮긴 흩어진 군중

소수빈은 환경에 의해 변형된 식물 변이에 대해 연구하며, 이동성이 없는 식물에게 기계와의 결합을 통해 이주의 자유성을 부여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작가는 '미래의 공-존 시스템'에 대해 논의하며 기계+생명의 형태가 미래 환경에 어떤 논의를 불러일으킬지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주로 자연의 순환 구조 안에서 식물체가 가지는 증식, 분열, 반복의 과정을 식물의 형태와 패턴을 통해 연구한다. 작가의 작품 속에서 식물은 생명이라는 공통의 개념을 공유하며 각각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생물의 유기적인 구조가 자연 이미지로 재현되거나 가상의 형태로 구현되어 작품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작품을 제작하는 재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Vivisystem>은 관람자는 직접 식물의 이동을 개입하여 현 생태계의 모습을 구현하는 인터랙티브 설치 작업이다. 살아있는 식물과 인공식물을 손으로 터치하여 자신이 원하는 모양으로 연출하며 놀이라는 감각적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마그넷 판 위에서 실제 식물과 인공식물이 이동하는 과정 안에서 자연과 인공의 경계는 허물어진다. 궁극적으로 식물은 실체적으로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Dispersed crowd that changed the center of gravity

So Soo Bin's work centers on environmentally-driven plant modification, exploring possibility of liberating the immobile plant by combining it with the machine. The artist looks into the 'future coexistence system', raising question about how the merging of machine and life form could affect the future environment. She explores the natural cycle of plants - multiplication, division, repetition - through their shapes and patterns. Her work features transformed plant forms sharing the common concept of life. Organic structures, whether rendered as natural images or virtual shapes, become a theme of the work, or even used as art materials. *Vivisystem*, an interactive installation work, allows the audience to engage in moving the plant by themselves to create the current ecosystem. The audience make a contact with both living and artificial plants by hand, shaping the installation's form through their own hand movements, which is a sensory and playful experience. As the audience freely move the two different magnetically responsive natural elements, the boundary between the organic and the artificial dissolves in a dynamic interplay. Ultimately, the

자연과 기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불안정적으로 변형되는 존재임을 시사한다. 관람자에 의해 재배치되고 재조합되는 과정을 거쳐 작품은 이미지 연출이 변화할 뿐만 아니라 내재되어 있는 의미가 교체됨으로써 이전의 의미는 지워지거나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된다. 검은 평면 위에 인공식물과 실제 식물을 뒤섞여 있는 모습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과 자연 그대로 태어난 것들이 섞여 다양한 이주 경로를 통해 움직이며 공존하는 현 생태계를 상기한다. 식물은 본래의 종에서 다른 식물과 이종교배를 하며 색다른 존재로 탈바꿈하거나 인간이 개입하여 유전자 변형을 통해 갖가지 종으로 변화를 거듭하며 다양한 경유로 영향을 받고 변화한다. 갖가지 종으로 변신을 하며 진화를 감행하는 식물은 본래 하이브리드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작품명인 '비비시스템(vivisystem)'은 '태어난 것들과 만들어진 것들'을 포괄하는 용어로 하나의 혼종된 생물계의 현상을 보여준다. 관람객은 살아있는 식물과 인공식물을 직접 평면 위에서 이주시키며 적극적으로 식물의 이주(이동)에 개입하게 된다. 이는 유전자 변형을 통해 식물의 본래의 모습(종)이 사라지거나 이종으로 거듭나는 등 생태계의 질서가

work suggest that plants are metastably changeable within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nature, technology, and humanity, not static and unchanging. Through the rearrangement and recombination by the audience, the work not only transforms the subject as an image, but also the underlying meaning, therefore, the previous meaning is removed or replaced with something different. A jumble of natural and artificial plants on the dark surface reminds us of the current ecosystem where the organic and the man-made traverse and coexist along ever-shifting migratory paths. Plants are affected by various ways and eventually transformed into entirely new forms through natural processes like interspecies crossbreeding and human interventions like genetic modification. They possess an inherent capacity for hybridity as they transform into different species, constantly evolving themselves. *Vivisystem*, a term encompassing both 'living and artificial systems', showcases the heterogeneous living circle. By moving the living and artificial plants on the surface by themselves, the audience intervene the migration (movement) of plants. This interactive experience serves as a metaphor for the ecological disturbance

무분별해지는 현실과 기술의 시대에서 식물의 존재성, 생태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재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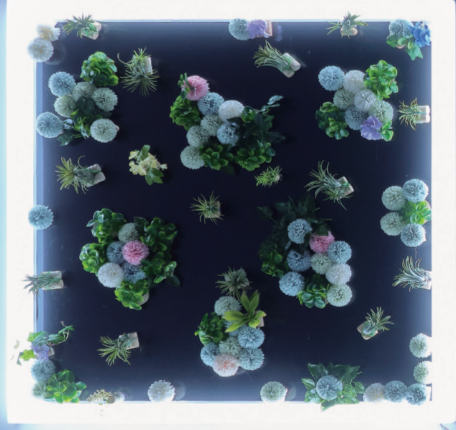
in the real-world like genetic modification and cross-
breeding, ultimately prompting us to re-contemplate
the existence of plants and the balance of the
ecosystem.















신승재 소리심기

불균형에서 오는 퍼텐셜 에너지

// <소리심기>
2024
알루미늄 프레임, 8ch 스피커, 화분, pcb
220x400x300cm

Shin Seungjae *Seeding Sound*

The Cacophony Of Unbalance

// *Seeding Sound*
2024
Aluminum Frame,
8-Channel Speaker, PCB
220x400x300cm

.....
 감각의 투사와 미분화된 잠재성

신승재는 자연의 키워드를 가진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하여 음소재를 만들고, 컴퓨터를 통하여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작곡한다. 그는 작곡이라는 형태와 컴퓨터 음악이라는 방식을 통해 입체음향이라는 기술을 조명한다. <소리심기>는 살아있는 식물과 미세전류 센서, 아두이노, 스피커로 구성된 인터랙티브 오디오비주얼 설치작업이다. 관람자가 식물 잎과 접촉했을 때 식물 세포가 감지하여 측정되는 데이터는 작가가 설계한 입체음향 시스템에서 작곡의 구성 요소로 활용된다. 관람자의 손과 식물의 잎이 맞닿으면 식물의 세포는 이를 감지하고 칼슘 이온의 농도가 높아진다. 식물의 잎에 부착된 미세전류 센서로 측정된 데이터는 작가가 설계한 입체음향 시스템으로 전달된다. 작품은 관객의 물리적인 접촉과 소통에 따라 생성된 식물의 사운드가 입체음향 시스템에서 전개됨에 따라 구체화된다. 식물 잎은 경계를 허물기 위해 침투되어야 하는 식물의 피부로서 상처받기 쉬운 살갓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관람자의 손길에 의해 식물의 잎은 고정성과 유동성, 반복과 변이 등 양면적인 요소가 공존하면서 바깥으로의 접촉 지점으로서 '막'이 존재하게 된다. 식물의

.....
 Sensory projection and dormant potential

Shin Seungjae creates sound material using diverse media that incorporates keywords related to nature, develops algorithm, and composes music by computer. He highlights the stereophonic sound technology through composition and computer music. *Seeding Sound*, an interactive audiovisual installation work, is composed of living plants, micro current sensors, Arduino, and a speaker. The data, measured by the plant cell when the audience make a contact with the plant leaf, plays a role as a compositional element in the 3D sound system created by the artist. When the audience touches the leaf, the plant cell senses it, leading to an increase in calcium ion concentration. This change is captured by the micro current sensor attached to the leaf and delivered to the 3D sound system built by the artist. The artwork comes alive as the stereophonic sound system transforms physical contact and audience interaction with the plants into plant sound. The plant's leaf, as its skin which should be penetrated to demolish the boundary, is a vulnerable point. When touched, it embodies co-existence of two-sided elements such as fixability and flexibility, repetition and variation,

막은 외부와 상호적 관계를 담는 피부와 같이 안과 밖을 연결하는 경계면으로 작용한다. 때로는 식물의 실체를 덮고 있는 겹질로서, 때로는 지각하는 주체로서 식물의 막은 식물 내부와 외부 세계를 구분하는 경계이면서 동시에 외부 세계와의 통로가 되어 식물 주변을 감싸고 있는 환경, 공기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관람자는 식물 잎과 접촉을 하고 관계를 맺으며 '사이'의 개념을 획득하고 시각에서 촉각이라는 감각의 확장을 경험한다. 작가는 식물과 관객과의 물리적 접촉으로 생겨난 입체적 사운드를 '씨앗'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표방한다. 작품 관람을 마친 관객은 '씨앗'을 다시 작품의 화단에 심는 행위로 전개되는데, 이는 생태계 식물의 종이 다양하게 변하고, 퍼지듯 '심기'가 되풀이되어 관람객의 지각이 확장됨을 시사한다. 식물과 관람자의 관계 맺음이 계속됨에 따라 데이터는 축적되어 연속적으로 새로운 구조의 사운드가 창발한다. 이는 식물 잎이 외부 접촉을 통해 자극을 받고 시간의 누적에 따라 복합적인 피부 자아가 형성됨을 은유한다. 작품 속 사운드는 식물과 관객의 관계 속에서 조절되며 한곳에 머물러있지 않고 새로운 선율로 거듭 변주된다.

creating a 'layer' as a contact point between the inner and external worlds. The plant's layer works as a liminal surface connecting the inside and outside like human skin that has reciprocal relationship with the outside. Sometimes it can function as a protective skin, an organ of perception, or a boundary between the plant's internal and external worlds as well as a corridor to the external world to embrac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atmosphere. As the audience touch the leaf and build relationship with it, they realize the concept of 'in-between' and experience sensory expansion from sense of sight to sense of touch. The artist manifests stereophonic sound as a new medium, 'seed', as the sound is created physical contact between the plants and the audience. The audience plant the 'seed' in the flower bed again at the end, meaning that the plant species of the ecosystem are actively changing and broadening the audience awareness as they re-plant the seed. As they forge a relationship with the plant, data cumulated over time sequentially create new sound structure. It is a metaphor for the leaf forming complex skin self over the course of the continuous interaction with the external world. The shape and structure of the sound goes through adjustment and

modulation, influenced b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lant and the audience, eventually tying the final no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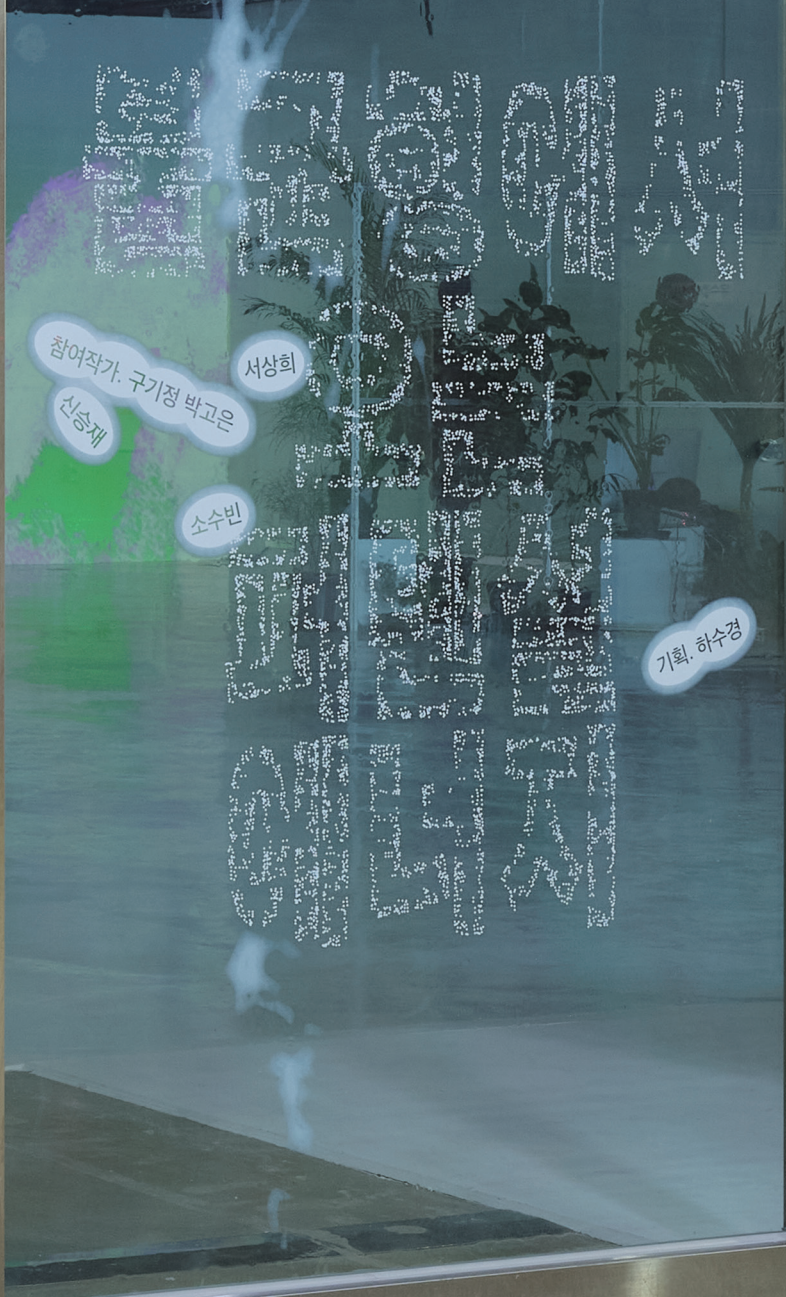




2024. 4. 23.(Tue) - 7.7.(Sun)

The Cacophony of Unbalance

대구예술발전소 3층
미디어 팩토리, 미디어 월



참여작가. 구기정 박고은
신승재

서상희

소수빈

기획. 하수경

모색한다. 예술은 어김없이 기술의 시대에 잔물치어
문제를 동시대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질주하는 기술
실체들에 적합한 새로운 사유의 언어가 필요한 현
가능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기술과 상호 공존
방식의 소통과 정서적 공명의 관계는 어떻게 동행이

전시는 근대적 예술 개념과 관습적 장르 구분에서 벗
대변하는 다섯 점의 융합예술작품을 소개한다. 작
‘자연과 ‘기술’의 요소가 혼종, 변형의 방식으로 기
존재로 자리한다. 전시 안에서 작품은 다른 작품과
양상불을 형성하고 작품에 내재하는 잠재성은 새로
작품들이 하나의 양상불로 변조되어 가는 관계맺음
될지, 무의미한 소음이 될지는 작품 사이의 유기적
것이다. 전시 안에서 서로 다른 것들이 모였을 때 불
보며, 작품 속에서 기술성이 내포하는 양식에 대해

물리학 이론에서 일컫는 ‘준안정상태’는 안정된 상태
그 어느 경계의 상태이다. 언제 다른 상태로 전환될
어느 순간 불균형이 생기면 잠재되어 있던 에너지가
각각 다르게 창발된 작품들이 모인 《불균형에서 오
준안정상태이다. 오히려 안정되거나 평형된 상태가
깔려있고, 내부에서 비대칭적인 두 극단 사이에서
새로운 차이와 그 관계로부터 생기는 내적 공명이
이어질 수 있을까?

자연과 기술이 함께하는 현상의 구도를 동시대 예술
작품들의 새로운 관계맺음을 바라보며,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과 담론, 그리고 기술과 공존
지금 어떠한지를 돌아보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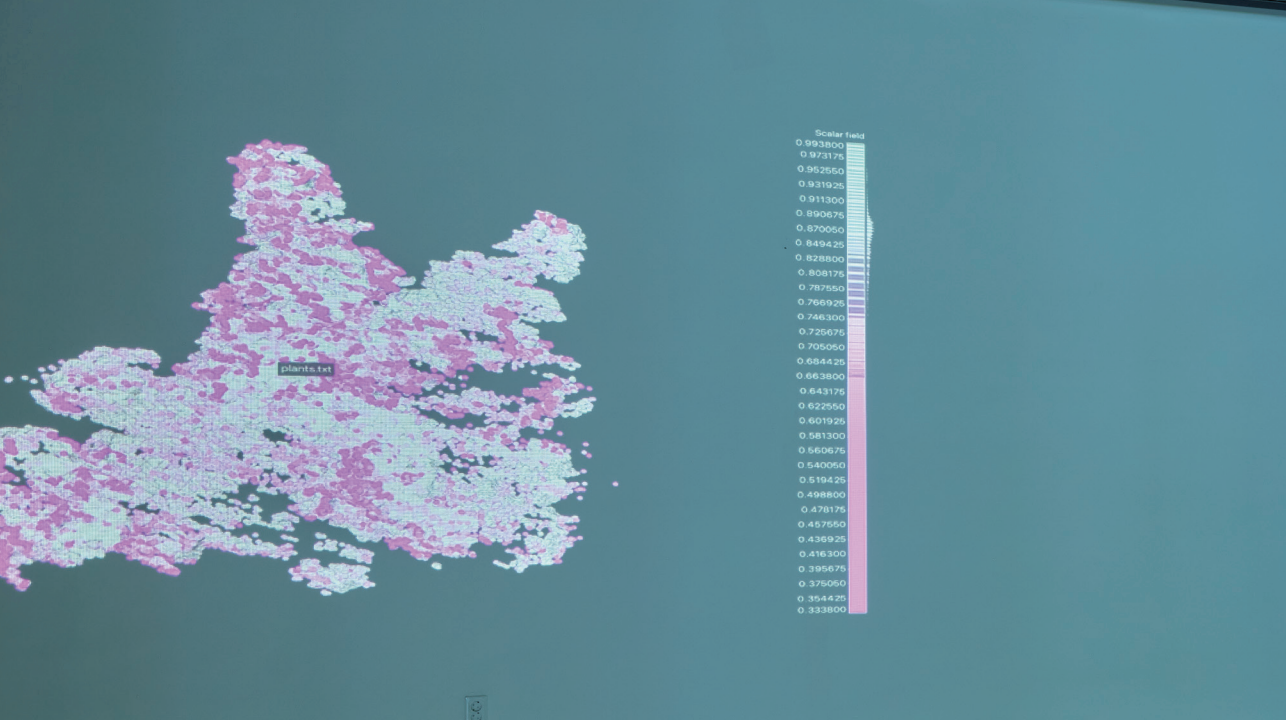
기획. 하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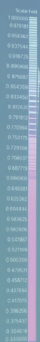




Scalar field

0.991300
0.973175
0.952560
0.931925
0.911300
0.890675
0.870050
0.849425
0.828800
0.808175
0.787550
0.766925
0.746300
0.725675
0.705050
0.684425
0.663800
0.643175
0.622550
0.601925
0.581300
0.560675
0.540050
0.519425
0.498800
0.478175
0.457550
0.436925
0.416300
0.395675
0.375050
0.354425
0.333800













.....
 구기정

1990년생.
 서울에서 거주 및 활동.

학력

- 2019 스위스 에칼/로잔예술대학교
 사진학과 석사
 2016 홍익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학사

주요 개인전

- 2024 《Route 0》, 서호미술관, 남양주
 2023 《초과된 풍경》, 광화문 광장, 서울
 2022 《Contrology》, 홀1, 서울
 2020 《Defaulted》, 엔에이 갤러리, 서울
 2017 《Virtual Writing》,
 Societiet.Sexyland,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
 Gijeong Goo

b. 1990.
 Lives and works in Seoul,
 South Korea.

Education

- 2019 MA in Photography, ECAL/
 École cantonale d'art
 de Lausanne, Lausanne,
 Switzerland
 2016 BFA in Communication
 Design, Hongik University,
 South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

- 2024 *Route 0*, Seoho Museum of
 Modern Art, Namyangju,
 South Korea
 2023 *Exceeded Scenes*, Gwanghwamun
 Square, Seoul, South Korea
 2022 *Contrology*, Hall1, Seoul
 South Korea
 2020 *Defaulted*, NslashA Gallery,
 Seoul, South Korea
 2017 *Virtual Writing*,
 Societiet.Sexyland,
 Amsterdam, Netherlands

주요 단체전

- | | | | |
|------|---|------|---|
| 2024 | 《불균형에서 오는 퍼텐셜 에너지》, 대구예술공장, 대구 | 2021 | 《Pixxelpoint 'Deep Deep Forest'》, Nova Gorica City Gallery, 노바 고리차, 슬로베니아 |
| 2024 | 《다섯 발자국 숲》,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어린이미술관, 과천 | 2021 | 《Organic Cyborg》, 아웃사이트, 서울 |
| 2024 | 몰타 비엔날레 《Hybrid Landscape is Isolated》(Thematic Pavilion), 국립고교학 박물관, 발레타, 몰타 | 2021 | 《가벼운 사진술》, 일민미술관, 서울 |
| 2023 | 《현대도예-오디세이》, 경기도자미술관, 이천 | 2021 | 《Nothing Makes Itself 횡단하는 물질의 세계》, 아르코미술관, 서울 |
| 2023 | 《느리고 빠른 이식》, 문래예술공장, 서울 | 2020 | 《No Functional Furnitures》, 화이트노이즈, 서울 |
| 2023 | 《Oled Art Wave 'Long Dream'》, 쎄느, 서울 | 2020 | 《PRECTXE 2020》, 부천 아트벙커, 서울 |
| 2023 | 《SeMA 앤솔러지: 열 개의 주문》,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 2019 | 《Covered, The Selects》, 뉴욕, 미국 |
| 2023 | 《다시, 자연에게 보내는 편지》, 문화역서울284, 서울 | 2018 | 《DDD》, ECAL, 로잔, 스위스 |
| 2022 | 《Dutch Design Week 'Get Set'》, Strijp-T, 아인트호벤, 네덜란드 | 2018 | 《Mirage Club》, 24 rue Beaubourg(Paris Photo), 파리, 프랑스 |
| | | 2018 | 《Immersed Materiality》, 화이트노이즈, 서울 |

Selected Group Exhibition

- | | | | |
|------|---|------|--|
| 2024 | <i>The Cacophony of Unbalance</i> , Daegu Art Factory, Daegu, South Korea | 2022 | <i>Dutch Design Week 'Get Set'</i> , Strijp-T, Eindhoven, Netherlands |
| 2024 | <i>Dear My Forest</i> , MMCA Gwacheon, Gwacheon, South Korea | 2021 | <i>Pixxel point 'Deep Deep Forest'</i> , Nova Gorica City Gallery, Nova Gorica, Slovenia |
| 2024 | <i>Malta Biennale 'Hybrid Landscape is Isolated'</i> (Thematic Pavilion), National Museum of Archaeology, Valletta, Malta | 2021 | <i>Organic Cyborg</i> , Out-Sight, Seoul, South Korea |
| 2024 | <i>Odyssey of Contemporary Ceramic Art</i> , gmocca, Icheon, South Korea | 2021 | <i>Super-fine</i> , Ilmin Museum of Art, Seoul, South Korea |
| 2023 | <i>A Deliberate and Rapid Transplant</i> , Seoul Art Space Mullae, Seoul, South Korea | 2021 | <i>Nothing Makes Itself</i> , Arko Art Center, Seoul, South Korea |
| 2023 | <i>Oled Art Wave 'Long Dream'</i> , Scène, Seoul, South Korea | 2020 | <i>No Functional Furnitures</i> , Whitenoise, Seoul, South Korea |
| 2023 | <i>Anthologĭa: Ten Enchanting Spells</i> , Buk-Seoul Museum of Art, Seoul, South Korea | 2020 | <i>PRECTXE 2020</i> , Bucheon Art Bunker, Bucheon, South Korea |
| 2023 | <i>Another Letter to Nature</i> , Culture Station Seoul 284, Seoul, South Korea | 2019 | <i>Covered, The Selects</i> , New York, US |
| | | 2018 | <i>DDD</i> , ECAL, Lausanne, Switzerland |
| | | 2018 | <i>Mirage Club</i> , 24 rue Beaubourg(Paris Photo), Paris, France |
| | | 2018 | <i>Immersed Materiality</i> , Whitenoise, Seoul, South Korea |

.....
박고은

1992년생.
서울 및 암스테르담에서 거주 및 활동.

학력

- 2021-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박사
- 2019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 그래픽 디자인학과 석사
- 2016 성균관대학교 디자인학과 & 글로벌리더학과 학사

.....
Goeun Park

b. 1992.
Lives and works in Seoul,
South Korea and Amsterdam.

Education

- 2021- Doctor of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 2019 MFA in Graphic Design,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Rhode Island, USA
- 2016 BA in Design & Global Leader,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주요 단체전

- | | | | |
|------|---|------|--|
| 2024 | 《불균형에서 오는 퍼텐셜 에너지》, 대구예술공장, 대구 | 2019 | 《Conference on Choreographic Interface Research》, 브라운 대학교, 로드 아일랜드, 미국 |
| 2023 | 《움직이는 사이: Notational Space》, Project 17717, 서울 | 2018 | 《Yale Art Book Fair》, 예일 아트 갤러리, 예일 대학교, 코네티컷, 미국 |
| 2022 | 《김물살터: 일상에서 누리는 널리 이로운 디자인》, 문화역서울 284, 서울 | 2017 | 《To Whom it May in Concern》, Sol Koffler gallery, 로드아일랜드, 미국 |
| 2021 | 《번역의 과정》, WRM Gallery, 서울 | | |
| 2021 | 《Unrealized Archive 6: Attending [To] the Futures》, 쾰른, 독일 | | |
| 2021 | 《Typo-Heterochronia: Seoul-Atlanta》, Bakery Gallery, 애틀랜타, 미국 | | |
| 2021 | 경기디자인 페어 《굿즈굿즈》, 경기상상캠퍼스, 수원 | | |
| 2021 |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기념 특별전 《메타-가든》,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 | |
| 2020 | 《바이오피리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 | |

Selected Group Exhibition

- | | | | |
|------|--|------|--|
| 2024 | <i>The Cacophony of Unbalance</i> , Daegu Art Factory, Daegu, South Korea | 2019 | <i>Conference on Choreographic Interface Research</i> , Brown University, Rhode Island, US |
| 2023 | <i>Notational Space</i> , Project 17717, Seoul, South Korea | 2018 | <i>Yale Art Book Fair</i> , Yale Art Gallery, Yale University, Connecticut, US |
| 2022 | <i>Design Everyday Life</i> , Culture Station Seoul 284, Seoul, 2022 | 2017 | <i>To Whom it May in Concern</i> , Sol Koffler gallery, Rhode Island, US |
| 2021 | <i>Process of Translation</i> , WRM Gallery, Seoul, South Korea | | |
| 2021 | <i>Unrealized Archive 6: Attending [To] the Futures</i> , Cologne, Germany | | |
| 2021 | <i>Typo-Heterochronia: Seoul-Atlanta</i> , Bakery Gallery, Atlanta, US | | |
| 2021 | <i>Gyeonggi Design Fair Goods Goods</i> , Gyeonggi Sangsang Campus, Suwon, South Korea | | |
| 2021 | <i>Commemorative Exhibition of the 9th Anniversary of Gwangju Design Biennale 2021 Towards Meta_Garden</i> , Gwangju Museum of Art, Gwangju, South Korea | | |
| 2020 | <i>Biophila</i> , Asia Culture Center, Gwangju, Seoul, South Korea | | |

서상희

1986년생.

서울 및 대구에서 거주 및 활동.

학력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미디어아트학과 박사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서양화 석사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학사

주요 개인전

2024 《그곳, 정원_#Virtual》,
수성아트피아, 대구

2017 《올해의 청년작가 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2016 《가상정원》, 봉산문화회관, 대구

2015 《Rhuthm of Drawing_우주,
식물 그리고 집》, 범어아트스트리트
space 5, 대구

SEO Sanghee

b. 1986.

Lives and works in Seoul
and Daegu, South Korea.

Education

Ph.D in Media Ar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South Korea

MFA in Paint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South Korea

BA in Fine Ar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South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

2024 *There, Garden_# Virtual*,
Suseong Artpia, Daegu,
South Korea

2017 *2023 Young Artists of the
Year*, Daegu Arts Center,
Daegu, South Korea

2016 *Virtual Garden*, Bongsan
Cultural Center, Daegu,
South Korea

2015 *Rhuthm of Drawing_Universe,
Plant and House*, Beomeo
Artstreet space 5, Daegu,
South Korea

주요 단체전

- | | | | |
|------|--|------|--|
| 2024 | 《불균형에서 오는 퍼넬셜 에너지》,
대구예술공장, 대구 | 2018 | 《TAG(Teamwork of Artist
Group)》, 수창맨션, 대구 |
| 2023 | 《e.想 세계_낯선 정원》,
양평군립미술관, 양평 | 2017 | 《레드홀릭》, Honga art lounge,
대구 |
| 2022 | 《웰컴제너레이션》, 예술의 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서울 | 2017 | 《Art without Man》, 경북대학교
미술관, 대구 |
| 2021 | 《메타_가든》,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 | |
| 2019 | 《청년미술프로젝트YAP'19_
별이 빛나는 시간》, EXCO, 대구 | | |
| 2019 | 《디어 브레인》, K현대미술관, 서울 | | |
| 2019 | 《대구의 얼굴》, 웃는얼굴아트센터,
대구 | | |
| 2019 | 《일렁이는 모든 것의 통로》,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서울 | | |
| 2019 | 《또 다른 가능성_드로잉전》.
봉산문화회관, 대구 | | |
| 2019 | 《포스트공동체 l/ing》,
수창청춘맨션, 대구 | | |
| 2018 | 《대구예술생태조성프로젝트_올로,
오-작가여》,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 | |

Selected Group Exhibition

- | | | | |
|------|--|------|---|
| 2024 | <i>The Cacophony of
Unbalance</i> , Daegu Art
Factory, Daegu, South
Korea | 2019 | <i>Post community ing/l</i> ,
Suchang mansion of youth,
Daegu, South Korea |
| 2023 | <i>e.surreal World_
Unfamiliar Garden</i> ,
Yangpyeong Art Museum of
Art, Yangpyeong, South
Korea | 2018 | <i>You Only Live Once</i> , Daegu
Art Factory, Daegu, South
Korea |
| 2022 | <i>Welcome Generation</i> ,
Hangaram Design Museum,
Seoul, South Korea | 2018 | <i>TAG(Teamwork of Artist
Group)</i> , Suchang mansion of
youth, Daegu, South Korea |
| 2021 | <i>Towards Meta_Garden</i> ,
Gwangju Museum of Art,
Gwangju, South Korea | 2017 | <i>Redholic</i> , Honga art lounge,
Daegu, South Korea |
| 2019 | <i>stat, starT of point</i> ,
EXCO, Daegu, South Korea | 2017 | <i>Art without Man</i>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rt
Museum, Daegu, South Korea |
| 2019 | <i>Dear Brain</i> , K.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South Korea | | |
| 2019 | <i>Face of Daegu</i> , Dalseo
Art Center, Daegu, South
Korea | | |
| 2019 | <i>Passageway to All Those
Flows</i> , seoripul gallery,
Seoul, South Korea | | |
| 2019 | <i>Another possibility_
Drawing exhibition</i> ,
Bongsan Cultural Center,
Daegu, South Korea | | |

소수빈

1983년생.
서울에서 거주 및 활동.

학력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회화과
프랑스 국립 파리 8대학교 현대예술과
뉴미디어 석사
프랑스 국립 파리 8대학교
조형예술학 학사

주요 개인전

- 2024 《After the Death of Nature : Techno-nature》, 아트플러그 연수, 인천
- 2023 《New-ecosystem : Plant technology》,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 2022 《포스트 식물 : 감각하는 식물들》, 학교재 아트센터, 서울
- 2022 《ZERO : The New Anthropocentrism》, 스페이스 빔, 인천
- 2021 《PLANT 신-생태계:식물과 인간》, 트라이보울, 인천
- 2020 《식물_관종식물》, 고양아람누리 갤러리누리, 고양

So Soo Bin

b. 1983.
Lives and works in Seoul,
South Korea.

Education

Ph.D in Painting, Hongik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MFA in New Media, Université
Paris-VIII, Paris, France
BA in Arts plastiques,
Université Paris-VIII, Paris,
France

Selected Solo Exhibition

- 2024 *After the Death of Nature : Techno-nature*, Artplug Yeonsu, Incheon, South Korea
- 2023 *New-ecosystem : Plant technology*,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South Korea
- 2022 *Post Plants: Sensing Plants*, Hakgojae Art Center, Seoul, South Korea
- 2022 *ZERO : The New Anthropocentrism*, Space Beam, Incheon, South Korea
- 2021 *Plant, New-ecosystem: plant and human*, Tribowl, Incheon, South Korea
- 2020 *Plant_Attention Plant*, Goyang Aram Nuri Gallery Nuri, Goyang, South Korea

주요 단체전

- | | | | |
|------|--|------|--|
| 2024 | 《불균형에서 오는 퍼텐셜 에너지》,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 2020 | 《비밀의 식물원》, GS 예울마루, 여수 |
| 2024 | 《김소장 실험실_원더랜드》, 장생포문화창고 갤러리 C, 울산 | 2019 | 《Homophones, Kim. So. Jang. LAB》, Galerie Richard, Paris, FRANCE |
| 2023 | 《2023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광주 | 2019 | 《Oeuvres sur papier》, Galerie Richard, Paris, FRANCE |
| 2023 | 《playground : artxscience》, 고양아람누리, 고양 | 2019 | 2019 아티언스 대전 《실험을 실험하다》, 예술가의 집, 대전 |
| 2023 | 《인공생태계 - 저어새프로젝트》, 인천아트플랫폼 제2전시실, 인천 | | |
| 2023 | 《link. 바로 그 00》,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 | |
| 2023 | 《디지털 색상의 환상: 인천 청년 미디어비엔날레》, 갤러리 어빌리지, 인천 | | |
| 2022 | 《art 대전 : my first collection》, 대전 신세계 갤러리, 대전 | | |
| 2021 |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기념 특별전 《메타-가든》,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 | |
| 2021 | 《감지 않는 눈 흐늘거리는 몸 미생물의 노래》, 교문갤러리, 부산 | | |

Selected Group Exhibition

- | | | | |
|------|---|------|--|
| 2024 | <i>The Cacophony of Unbalance</i> , Daegu Art Factory, Daegu, South Korea | 2021 | <i>Towards Meta_Garden</i> , Gwangju Museum of Art, Gwangju, South Korea |
| 2024 | <i>Wonderland : kimsojang's world</i> , Jansaengpo Culture Depot, Ulsan, South Korea | 2021 | <i>Unclosed eyes, Squish bodies, Song of the Microorganisms</i> , Busan Educational and Cultural Center for Students, Busan, South Korea |
| 2023 | <i>2023 Gwangju Media Art Festival</i> , Gwangju MediaArt Platform, Gwangju, South Korea | 2020 | <i>Secret botanical garden</i> , GS Yeulmaru, Yeosu, South Korea |
| 2023 | <i>playground : artxscience</i> , Aram Art Museum, Goyang, South Korea | 2019 | <i>Homophones, Kim. So. Jang. LAB</i> , Galerie Richard, Paris, France |
| 2023 | <i>Artificial ecosystem - jeoesae project</i> , Art Platform, Incheon, South Korea | 2019 | <i>Oeuvres sur papier</i> , Galerie Richard, Paris, France |
| 2023 | <i>link. this 00</i> , Art Platform, Incheon, South Korea | 2019 | <i>Artience Daejeon 2019 Experimenting the Experiments</i> , Daejeon Artis House, Daejeon, South Korea |
| 2023 | <i>The illusion of digital color: Incheon Young Media Biennale</i> , GALLERY Avillage, Incheon, South Korea | | |
| 2022 | <i>Art Daejeon : my first collection</i> , Sinsegae Gallery, Daejeon, South Korea | | |

신승재

1995년생.
서울에서 거주 및 활동.

학력

2021 성결대학교 실용음악과 학사

Shin Seungjae

b. 1995.
Lives and works in Seoul,
South Korea.

Education

2021 BA in Applied music,
Sungkyul University,
Anyang, South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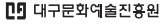

주요 단체전

- 2024 《불균형에서 오는 퍼텐셜 에너지》,
대구예술공장, 대구
- 2023 《Meteorite Impact》 온라인
쇼케이스
- 2023 《듀얼 DUEL/DUAL》, 윈드밀, 서울
- 2022 《감각의 비경계, 맞닿은 세계》,
세운홀, 서울
- 2022 《A에서 시작되는 울림》, KT&G 춘천
상상마당, 춘천
- 2021 《감각의 숲》, 경주 우양미술관, 경주
- 2021 《음악의 기술》, 부평아트센터, 인천
- 2021 《내일의 예술》,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 2021 《Youth 7#》, CICA Museum, 김포
- 2020 《The 20th Seoul International
New media Festival》, 네마프
대안영화제, 서울

Selected Group Exhibition

- | | |
|---|---|
| 2024 <i>The Cacophony of Unbalance</i> , Daegu Art Factory, Daegu, South Korea | 2021 <i>Tune made with Art and Technology</i> , Bupyeong Art Center, Incheon, South Korea |
| 2023 <i>Meteorite Impact</i> , Online showcase | 2021 <i>Art of Tomorrow</i> , Hangaram Art Museum, Seoul, South Korea |
| 2023 <i>DUEL/DUAL</i> , Windmill, Seoul, South Korea | 2021 <i>Youth 7#</i> , CICA Museum, Gimpo, South Korea |
| 2022 <i>The non-boundaries of the senses, touched worlds</i> , Sewoon Hall, Seoul, South Korea | 2020 <i>The 20th Seoul International New media Festival</i> , Nemap, Seoul, South Korea |
| 2022 <i>Music square project #1: Classic</i> , KT&G Chuncheon Sangsang madang, Chuncheon, South Korea | |
| 2021 <i>Forest of Senses</i> , Wooyang Museum of Contemporary Art, Gyeongju, South Korea | |



.....
불균형에서 오는 퍼텐셜 에너지

구기정	기획.	홍보영상.	행정지원.
박고은	하수경	황승익	정성진
서상희			
소수빈	글.	웹사이트.	후원.
신승재	하수경	2403LAB	 대구광역시
	홍라담		 대구문화예술진흥원
2024.4.23.		운송설치.	 대구예술발전소
→ 2024.7.7.	번역.	한국아트	
	김소연		
대구예술발전소		영상장비.	고마운 분.
3층	그래픽 디자인.	플렉	이찬희
미디어 팩토리,	아페퍼		
미디어월		홍보물.	인쇄.
	사진.	핸드	이든프린팅
	곽동경		
		운영지원.	발행.
		대구예술발전소	어포에틱페이퍼
			발행일.
			2024.8.7.

© 본 도록에 실린
글과 사진 및 도판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SBN
979-11-988947-0-0
979-11-988947-1-7
(93600)
비매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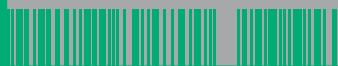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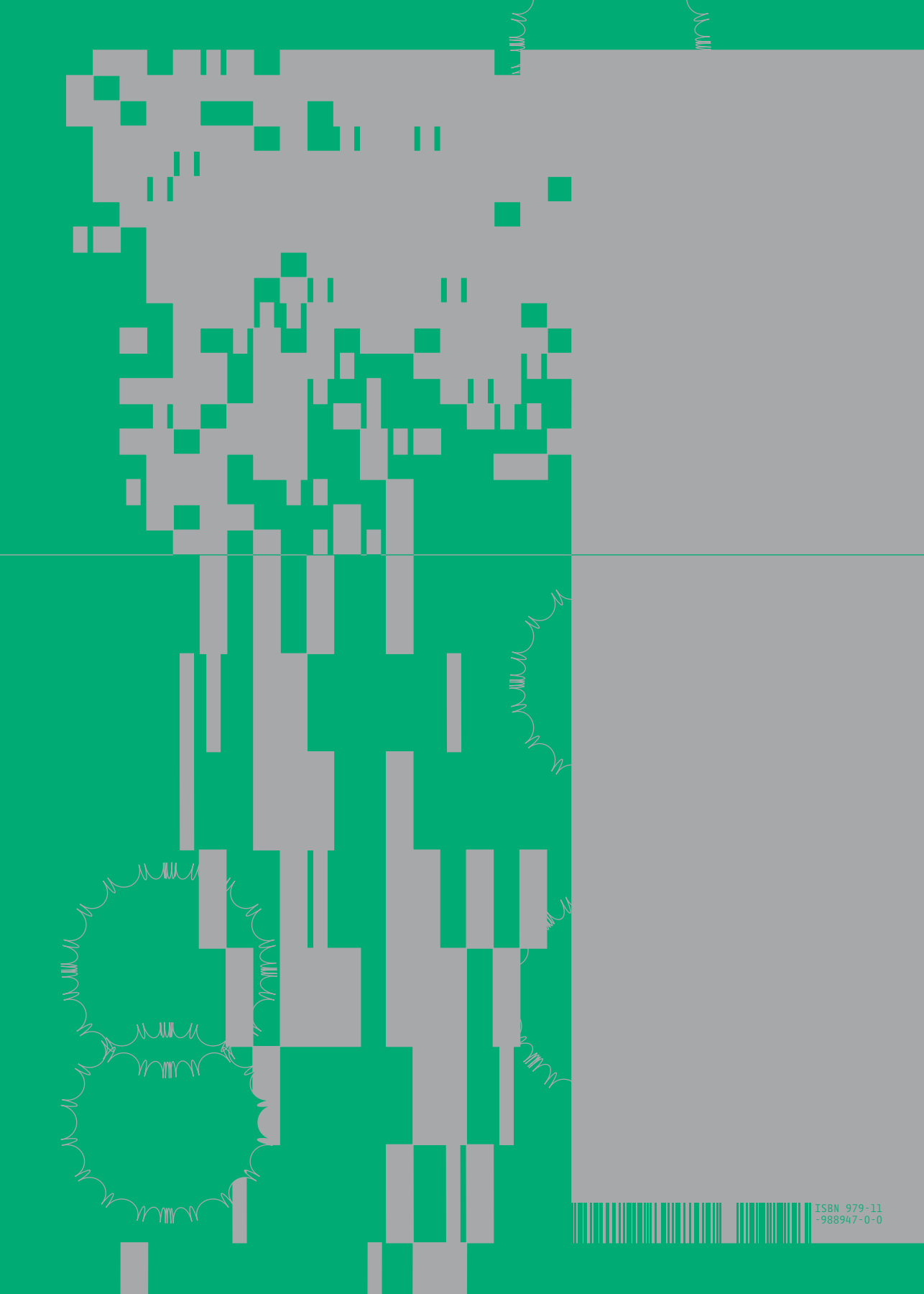
.....
The Cacophony of Unbalance

Gijeong Goo	Curator.	PR Video.	Administrative
Goeun Park	Sukyung HA	Seung ik Hwang	Support.
SEO Sanghee			SeongJin Jeong
So Soo Bin	Text.	Website.	
Shin Seungjae	Sukyung HA	2403LAB	Supported by
	Radam Hong		 대구광역시
Apr.23,2024		Transport &	 Daegu Foundation for Culture & Arts
→ Jul.7,2024	Translation.	Installation.	 DAEGU ART FACTORY
	Soyeon Kim	Hankuk Art	
Daegu Art			
Factory 3F	Graphic	A/V Tech.	Special
Media Factory,	Design.	Plac	thanks to
Media Wall	Apepper		Chan Hee Lee
		PR Material.	
	Photography.	h.end	Printed by
	Dongkyung Kwak		iidenprint
		Operation	
		Support.	Published by
		Daegu Art	Apoeticpaper
		Factory	
			Publication date.
			Aug.7,2024

© No part of
this catalogue
may be reproduced
or utiliz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the
prior permission
in writing from
the publisher.

ISBN
979-11-988947-0-0
979-11-988947-1-7
(93600)
NOT FOR SALE





ISBN 979-11-988947-0-0